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2018 보스톤 레드삭스 월드시리즈 우승 기념 퍼레이드에서 선수들과 가족 그리고 구단관계자를 실은 덕보트가 보일스턴 스트리트를 지나자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4일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한시간 늦춰진다

서머타임 종료 밤 더 길어진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11월 첫째주 일요일 4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된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해가 일찍 저물고 아침에는 해가 일찍 뜨게 되지만 밤이 더 길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에 따라 11월 4일 새벽 2시는 새벽 1시 한 시간 전으로 바뀐다. 보스톤을 비롯한 미국 동부의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의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지역과 서울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바뀐다. 서울의 시간은 미국 동부보다 14시간, 서부보다 17시간 빠르게 된다. >>3면으로 계속

레드삭스 우승퍼레이드 인파 거리 가득 메워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2018년 챔피언십 우승 기쁨 나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5년간에 우승컵을 차지한 보스톤 레드삭스가 10월 마지막 날 보스톤 시내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갖고 보스톤 팬들과 환호와 격려 그리고 맥주 캔을 나눠줬다.

퍼레이드는 레드삭스 홈구장인 펜웨이파크에서 11시에 시작됐다. 31일 오전에는 화씨 31도(섭씨 0도)로 쌀쌀해서 구단관계자, 선수들 그리고 선수 가족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몸을 녹이는 음료를 마신 후 퍼레이드를 시작했다. 수륙양용

자동차인 덕보트(Duck Boat)를 타고 랜스다운 스트리트에서 출발, 스테니포드 스트리트에서 마감했다.

축하인파들은 펜웨이파크에서부터 퍼레이드가 끝나는 시청 인근까지 거리를 가득 메우고 함께 환호하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크리스 세일, 데이비드 프라이스, 릭 퍼셀로, JD 마티네 >>9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2018년 10.11월 출발 한국행 항공권 특가

인천행 \$919~ 부산행 \$1,129~

보스톤 출발 - 인천행 NON-STOP 항공권 도리어 예약 시작!

2019년 4월 12일 첫 운항!

대한항공/보타항공/에어한글/마리타인항공/워너제트항공/에어캐나다 등 다수 항공사 개시전

UNNY D형 오피스	고층오피스, 라스베가스 4실	\$370+항공료
미리본 근대역 5실	LA, SFO, JFK, ORD, DEN	\$460+항공료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실	54/타+항공료	
미리본대형 1실 2실	5950+항공료	
미리본대형 1실 3실	\$750+항공료	

IACE TRAVEL 617.424.8956

Newstar JB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노인회 후원의 밤 행사, 한인들 함께 즐겼다

노인회 후원금 모금 취지, 200여명 참가 성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보스톤한미노인회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에 노인회 소속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 200여석의 준비된 좌석을 가득 메우는 성황을 이루었다. 하루 종일 내린 가을비에도 아랑곳 없이 한인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어 노인회의 위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행사였다.

렉싱턴 소재 엘크스클럽에서 10월 27일 열린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서 윤철호 보스톤한미노인회 회장은 “곳은 날씨에도 노인회를 위해 발걸음 하신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향후 노인회가 더욱 활발히 활동을 위해 노인들이 편히 모일 수 있는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며 후원자들의 보다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날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김용현 보스톤총영사는 “보스톤한미노인회는 노인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이곳 한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봉사하는 멋진 단체임”을 강조하며 총영사관 차원에



(좌로부터) 윤철호 보스톤한미노인회장, 김용진 보스톤한미노인회 이사장, 김용현 주보스톤 총영사



보스톤한미노인회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에 노인회 소속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 200여석의 준비된 좌석을 가득 메우는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보스톤라이프스토리 제공)

서도 많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기념식과 한식 만찬을 함께 나눈 후 2년만에 열린 한인사회 첫 연말파티 “보스톤한미노인회 후원의 밤”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여덟명의 중후한 남성으로 구성된 BKS중창단이 흥겨운 가곡과 정겨운 우리 노래로 이날 밤의 열기를 불어넣었고, 한25년 전 “소리사냥”이라는 듀엣으로 정식 가수활동을 했던 서울설령탕 박천우 사장이 녹슬지 않은 실력

으로 7080시대의 노래를 부르며 옛 추억을 소환했다.

후원의 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DJ 김중호 씨가 7080을 주제로 엮은 한밤의 댄스파티였다. 이날 참석한 한인들과 노인회원들은 스테이지에서 함께 어우러졌다. 이민생활의 스트레스도 풀고 한미 노인회 후원으로 효도도 하는 일석이조의 밤이었다.

(이 기사는 보스톤라이프스토리의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됐습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지역 연합선교 찬양의 밤 성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1뉴잉글랜드연회한인여성선교회가 주최한 연합선교찬양의밤이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10월 21일 일요일 밤 개최됐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찬양의 밤 1부 예배는 회장인 정에스터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예배는 김지영 부회장의 기도에서 이어 북부보스톤교회 담임 최진용 목사가 <꿈이 메마른 세상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성요한교회 담임 조상연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 됐다.

김영남 영성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찬양예배에는 비전교회, 우스터교회, 보스톤웨슬리교회, 시온교회, 무지개교회, UMW, 성요한교회, 그린랜드교회, 북부보스톤교회, 케네디컷중앙교회를 비롯 10개팀이 성가대, 중창단 등의 형태로 참가했다.

김은실의 바이올린, 강정무의 클라리넷, 심예지의 피아노로 시편 145편과 그사랑 특별연주와 목회자 찬양팀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최덕신), 참 좋으신 주님(김기영)을 불렀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연회한인여성선교회가 21일 주최한 연합선교찬양의밤에 참가교회팀,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비전교회 성가대, UMC 찬양팀, 케네디컷중앙교회 성가대, 성요한교회 성가대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듣는 시민협회 심포지움

시민협회 2018 차세대 리더십심포지움 10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미국내 각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리더들을 초청, 미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와 삶의 자세 등을 듣는 리더십 심포지움을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 법대에서 10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시민협회의 2018 차세대 리더십 심포지움(KACL YLS 2018)은 중학교에서 대학생까지 자녀들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가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주차는 물론 저녁까지 제공되는 알짜배기 행사다.

지난해 프로그램을 놓친 한 60대 남성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접하지 못해 아쉬웠으며 “내년에는 꼭 참가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었다.

올해 컨퍼런스 연사는 뉴욕주 최초 한인 하원의원 론김(김태석) 씨, 켄지 아시안 리소스의 사무총장인 아시안계 필립정 씨, 보스톤 대학 사회복지학 교



수 함혜옥 박사, 하버드의과대학 교수 박기범(Kee B Park, MD)박사로 구성됐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미국사회의 다양성과 아시안-아메리칸의 포

용가치(The Value of Diversity and Inclusion of Asian-Americans in America)”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별 초청으로 프래밍햄에서 한인 최초 주-하원에 출마하는 마리아 로빈슨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협회 행사위원장 추경석(kccb030@gmail.com) 혹은 양미아 위원(miayeung@yahoo.com)에게 문의할 수 있다.

시민협회 차세대리더십심포지움(KACL 2018 YLS)

일시 :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2시-6시

장소 : 하버드 법대 Room WCC2012 (585 Mass Ave Cambridge) bostonkorean@hotmail.com

서머타임 4일 종료, 한시간 더 잔다

▶▶1면에 이어서

대부분의 컴퓨터 기기는 자동으로 서머타임 해제가 적용되어 시간이 바뀌어 과거와 같은 혼동은 비교적 줄었다. 직접 바꿔주어야 하는 벽걸이 시계

, 차량의 시계는 토요일인 11월 3일 밤에 시계를 한시간 뒤로 돌려 놓으면 착오를 막을 수 있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야 할지 뒤로 돌려야 할지 혼동이 되면 'Spring forward Fall back' 으로 기억하면 쉽다.

일반적으로 서머타임의 종료는 본격적인 미 동부의 겨울이 시작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제 가을 옷을 집어넣고 겨울 의상과 장비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hsb@bostonkorea.com

창궐, 5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

개봉 4일만에 100만 돌파, 초대형 생존 액션 블록버스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짜릿한 액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 <창궐 RAMPANT>이 한국 개봉 4일 만에 누적 관객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개봉 후 5일 연속 부동의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개봉 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예매율 1위와 좌석판매율 1위를 지키며 독보적 흥행 질주를 하고 있다. <창궐 RAMPANT>의 11월 2일(금) 보스톤 다운타운 소재 AMC 로우스 보스톤커먼 극장을 비롯 전미국 주요도시에서 개봉된다.

“부산행”의 역대급 신드롬 있는 기대작인 <창궐 RAMPANT>은 배우 현빈과 장동건의 첫 스크린 만남만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세계 영화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세계 4대륙 19개국에서 동시 개봉이 확정됐다.

<창궐 RAMPANT>은 산자도 죽은자도 아닌 ‘야귀(夜鬼)’가 창궐한 세상, 위기의 조선으로 돌아온 왕자 ‘이청과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절대악 ‘김지준’의 혈투를 그린 초대형 생존 액션 블록버스터이다.

국내 언론 시사회와 개봉 후 관객들에게까지 커다란 관심과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오싹한 전율의 121분, 크리쳐물의 신세계를 열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눈을 땀 수 없는 스릴과 쾌감 선사!” (OSEN 김보라 기자), “설 새 없이 몰아치는 액션 시퀀스가 영화 <창궐>의 묘미”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현빈이 끌고 장동건이 민다! 스펙타클한 볼거리와 시원한 액션으로 시선 강탈!”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등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 박스오피스 부동의 1위 창궐은 Rampant란 영문 제목으로 개봉된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인 facebook.com/HitKmovie에서는 11월 1일까지 무료 평일 교환권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8, 2018

Class	Time	
PSAT/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I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Spring Eyes



Floating



Autumnal Cascade

뉴햄프셔 라이(Rye)를 거점으로 작품활동을 펴고 있는 유수례 화가가 오랜 침묵을 깨고 개인전을 연다

유수례 화가 작품전, 자연의 재탄생

할리데이 시즌 공략 다양한 소품도 준비

(라이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객원 기자 = 뉴햄프셔 라이(Rye)를 거점으로 작품활동을 펴고 있는 유수례 화가가 오랜 침묵을 깨고 개인전을 연다. 전시회는 오는 11월 10일(토요일) 오후 3시에 오픈해 12월 21일(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유수례 화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예전의 작품 분위기와 사뭇 다른 화풍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로 현대자연의 풍경을 보다 상징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고요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라는 주제로 표현된다.

유수례 화가는 “우리 주변의 자연의 화려함을 밝은 부드러운 색과 산뜻한 색상을 섬세하게 결합하여 표현했다”며 “전반적으로 “풍경을 단순하게 추상화시킨 반면 세심한 기법으로 그 우아함을 표현했다” 고 말했다.

각 작품은 혼란스럽고 허전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차분한 분위기로 다가와 휴식같은 편안함을 제공할 것

로 보인다. 다가오는 팽스기빙, 크리스마스 등 할리데이 시즌에 맞춰 선물하기에 적합한 소품들도 준비되어 있다.

• 전시회 오픈 :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5시

• 전시기간 :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12월 21일 금요일 화요일 ~금요일: 10시~5시/ 토요일은 예약

• 주소: SooRye Art Gallery, www.sooryeartgallery.com 11 Sagamore Rd, Rye, NH 03870, Tel) 603-319-1578 bostonkorean@hotmail.com



깊어가는 가을, 챔버그룹 콘서트

10일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지역 및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솔로이스츠 오브 뉴잉글랜드(Soloists of New England)의 ‘Autumn Blossom’ 가을 연주회가 11월 10일 토요일 저녁 8시 케임브리지 소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에서 열린다.

이 그룹은 뉴잉글랜드(NE)와 뉴욕(NY)의 뛰어난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되어 실내악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 재능 있는 어린 음악가들을 위한 콩쿨을 개최하

여 우승자들에게 여러 형태의 음악회를 열어주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솔로이스츠 오브 뉴잉글랜드는 11월 17일 뉴욕 링컨센터에서 1, 2회의 청소년 음악회 우승자들과 함께하는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깊은 가을의 정취를 담은 실내악을 보스톤 지역 한인들에게 무료로 선보인다.

문의: soloistsofnewengland@gmail.com

일시: 11월 10일(토) 8시
장소: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35 Magazine St, Cambridge MA 02139)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환절기 감기
단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면역력 먼저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과
면역력을 더하세요!
정관장을 더하세요!

11월 스페셜 프로모션
홍삼정 240g 구입시
천녹정 50g 무료증정

홍삼정 + 천녹정 \$46 상당 선물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전해드립니다.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노스이스턴대 주최로 공연하는 <가람양상블> 사진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지원, 유민혁, 박수빈 김혜원



(좌로부터) 가민, 박다솜, 원완철, 이정미, 정준호

한국 최고수준의 국악공연 보스톤서 관람기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최고 수준의 국악을 연주하는 한국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보스톤을 방문, 보스톤 콘서버토리와 텡스 대학교에서 워크숍과 공연을 14일(수) 15일(목) 양일간 진행한다. 특히 국악의 정수를 2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참여하는 연주자들은 국립국악원의 원완철(대금), 박다솜(가야금), 정준호(장구)이며 전통 무용가인 이정미와 뉴욕에 거주하는 연주자 가민(피리)도 함께 참여한다.

워크숍에서는 각 학교의 작곡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한국 전통악기를 위해 작곡한 곡을 연주자들과 함께 다듬게 되며, 이 곡들은 당일 저녁 공연에서 처음으로 연주될 예정이다. 또한 대금 산조, 가야금과 대금 이중주, 살풀이 등이 함께 공연된다.

이번 워크숍과 공연은 한국 국립국악원, 보스톤 콘서버토리, 텡스 대학교, 재외동포재단과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에서 공동으로 후원하며, 보스톤 콘서버토리 작곡과의 이은영 교수가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하였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국립국악원 단원 초청 워크숍 및 공연
11월 14일(수) Boston Conservatory, Studio 401

(31 Hemenway St. Boston, MA)
워크숍: 오후 5시 - 7시, 공연: 오후 8시

11월 15일(목) Tufts University, Granoff Music Center

(20 Talbot Ave. Medford, MA)
워크숍: 오후 4시 - 5시 30분 (Room 243), 공연: 오후 8시 (Distler Hall, 같은 빌딩)

bostonkorean@hotmail.com

국악경연 대상 "가람양상블" 워크숍 및 공연

대금 독주, 가야금 산조, 아쟁 산조, 판소리 등 보스톤 소재 노스이스턴대학교서 14일 수요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가람양상블>이 노스이스턴대학교에서 오는 11월 14일 수요일 워크숍과 공연을 진행한다.

전통음악연주 그룹인 <가람양상블>은 지난 8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2회 가람 전국국악경연대회의 대상 수상자들로, 멤버는 유민혁(아쟁과 타악),

장지원(판소리), 김혜원(가야금), 박수빈(대금) 등 젊은 국악 유망주들이다. 가람양상블은 뉴욕공연예술센터와 하트포드대학교에서의 연주를 마친 후 보스톤을 방문하게 된다.

노스이스턴대학이 주최하고 뉴욕 한국공연예술센터가 후원하는 이번 워크숍과 공연은 노스이스턴대학교 라이더홀 354호에서 진행된다. 대금

독주 <청성곡>, 가야금 산조, 아쟁 산조,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시나위 합주 등 다양한 민속음악과 정악으로 구성되어 국악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가람양상블 워크숍 및 공연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오후 1:35-2:40 (워크숍), 오후 4시 (공연)

장소: Northeastern University, Ryder Hall Room 354
(11 Leon St. Boston, MA)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오전 10시 ~ 밤 10시까지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편견과 차별에 있어 아시안과 성소수자는 동의어

트랜스젠더 자녀 둔 두 엄마, 보스톤 방문 이유
 "성소수자들, 법으로 보호해도 쉽지않은 삶"
 주민투표3번 LGBT차별금지법 존속여부, YES투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에 살다보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다. 아시안들에게 이런 경험은 아주 익숙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차별과 소외에 익숙한 아시안들도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따돌린다. 자신이 당하는 차별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가하는 차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라도 성소수자(LGBT)에 대한 편견이 있다.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생각했던 성 정체성 편견 말이다. 색깔마저도 흑과 백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를 관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소극적인 편견이지만 분명한 편견이었다.

적어도 남의 일일 때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에도 찬성했다. 그러나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들을 괴해했다. 또 이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편견의 정도는 자신의 일로 치환하면 쉽게 깨닫는다. 백인들이 아시안의 동등한 권리에는 찬성하나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자녀들 학교에서 마주치는 다른 인종들은 아시안 즉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내심 싫어하는 것은 상상하기 싫다.

아시안이란 인종을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듯이 성소수자들의 성 정체성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다. 그 험난한 소외의 길을 왜 스스로 선택한단 말인가. 왼손잡이도 왼손이 좋다고 해서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다.

매사추세츠 주는 다음 주 화요일(11월 6일) 주

민투표안(Ballot) 3안에 트랜스젠더차별금지법을 넣어 찬반여부를 묻는다. 이 법에 반대해 왔던 보수층들이 세를 모아 주민투표안에 이를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진보적인 매사추세츠주의 여론은 트랜스젠더차별금지법 존속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서퍽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존속 찬성은 68%, 반대 27.8%이었다.

29일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두 명의 엄마들을 차이나타운의 CPA(Chinese Progressive Association)에서 만났다. 뉴욕에 거주하는 클라라 윤씨(51)와 LA에 거주하는 성민씨(52)가 그들이었다. 2명의 엄마들은 매사추세츠주의 주민투표안의 통과 저지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자 보스톤에 왔다.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고민했고 소외를 경험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직접 소개한다.

▶ 먼저 LGBT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

클라라: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소수자 또는 엘지비티(LGBT), 즉 레지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라고 말한다.

▶ 아시안으로서 LGBT 인권 운동을 하신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는데 있어 아시안이란 정체성이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

클라라: 성미님과 저는 어려서 이민왔다. 다른 나라인 미국에 와 살면서 동양인이란 편견과 무시를 당했다. 동양사람이 미국에서 느끼는 편견이 엘지비티(LGBT) 운동을 할 때 공감할 불러일으켜 동양분들이 그 편견을 더 빨리 이해하신다.



차이나타운의 CPA(Chinese Progressive Association)에서 브로셔를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성민 씨(맨좌측)와 남편(사진 뒤쪽), 클라라 윤씨(사진 오른쪽)

힘든 것은 교회에서 '성소수자는 나쁘다. 죄인이다' 란 교육을 받으신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아예 얘기를 나누려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중간적 입장의 분들은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똑같이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 공감한다.

▶ 왜 매사추세츠 LGBT인권법안을 존속 여부를 묻는 3번 주민투표안(Ballot Question)이 문제인가?

클라라: 성소수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차별금지법이 2016년도에 매사추세츠 주 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 법 통과 당시 보스톤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은 10년 넘게 이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3번 주민 투표안은 이법으로 화장실에서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 폐지하려는 것이다.

우선, 성소수자들이 차별보호법이 시행된 도시

의 화장실 등 공공장소 안에서 한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인격과 인권을 가진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여러 사람이 투표로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권리인가. 셋째 No가 많아서 폐지되면 다른 주에서도 쉽게 없앨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성민: 법이 폐지되면 공공장소 즉 물, 도서관에서 남자처럼 보이는 아이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야 한다. 이로 인해 아이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집에 갈 때까지 참아야 되고 결국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사평물의 즐거움이 화장실을 참는 고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겁이 난다. 누구든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길 원한다. 나도 19살인 아이가 안전하길 원한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공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에 상처를 ▶▶7면으로 계속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6면에 이어서

내는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성적 기호 즉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선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 않는가?

클라라: 성소수자들은 사회에서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삶이 아니다. 결코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 결과가 아니다. 누가 힘든 삶을 찾아서 살려고 하겠는가. 자식들도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내가 아닌 나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왼손잡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법이라도 있어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성소수자들)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법이 중요하다. 가족중 누구나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안 3번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수자들의 권리를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 지난 주말 두 차례 Family Acceptance 워크숍이 있었다. 장소를 보니 Viet Aid와 CPAC다. 베트남과 중국 커뮤니티의 단체인데 이들 커뮤니티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클라라: 그것은 아니다. 보스턴 쪽에 한국보다는 베트남, 중국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다. 베트남이나 중국 사람들 중에 생각지도 않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분들은 오히려 무관심하다. 이 인터뷰가 굿 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성민: 한국분들과 이야기 해보면 생각보다 정의감이 크다. 우리 역사 일본에 압박을 받아서인지 정의와 불의를 못 참는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좀더 공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인 이민사회 일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지 않는가?

성민: 예수님은 아주 사회가 싫어하는 사람들, 즉 문둥이와 창녀들을 옹호했다. 그런 사람을 위로해주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낫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다. 우리가 어찌 서로를 판단하겠는가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는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해 성경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교회에서 배운 것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이 법은 결코 누구에게 피해가 될 법이 아니다.

▶ 마지막 메시지는?

클라라: 저는 이번 법에 관한 논쟁이 모든 분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해 좀더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존중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이번 투표안에 3번에 예스를 눌러달라. 사랑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표이다.

클라라 윤(51세) 씨는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며 파이낸셜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다. 아들은 올해 23세로 태어났을 때는 병원에서 여자 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2010년도 아이가 14살일 때 9학년 끝나고 커밍아웃했다. 가족이 1년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했으나 11학년때 남성으로 트랜지션하고 멋진 젊은이로 살고 있다.

성민씨 (52세) 씨는 중국계 남편과 함께 LA에 거주하고 있다. 16살 때 커밍아웃했다. 딸로 태어났지만 올해 19살로 남자가 아니며 남성적 '사람' 이다. 영어로는 논바이너리라고 부른다. 트랜스젠더는 여러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남성과 여성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LGBT) 등을 무지개 색깔로 표현하는 이유다. editor@bostonkorea.com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에서 출생한 불법 이민자 및 비시민권자들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출생 시민권 부여제 폐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에서 출생한 불법 이민자 및 비시민권자들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엑시오스(Axios) HBO에 29일 방영된 자체 인터뷰를 인용해 밝힌 것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 아이를 출생하면 미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나라" 라고 말하고 "이는 어차구니 없는 일이며 폐지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출생 시민권 부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보수 학자들은 수정헌법 14조가 합법 이민자와 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의 오마 재드왓 대표는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헌법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보장은 아주 명확하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서를 부채질 하고 분열을 조장하려는 반헌법적 시도" 라고 규정지었다.

미 언론들도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11월 6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반이민 입장을 재천명해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총 5천 200여명의 군인들을 국경에 배치 해 이민자들의 행렬을 저지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한편, 한국 언론들은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된다면 앞으로 원정출산은 없어질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맥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 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선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레드삭스 2018년 월드시리즈 우승 축하 퍼레이드에서 레드삭스 스타 투수였던 페드로 마티네스(우승컵 들고 있다)와 과거 레드삭스 클러치 히터 데이비드 오티스(선글라스 착용)가 참여해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보스톤 레드삭스, 2018년 월드시리즈 우승

21세기 최다 4회 우승팀, 21세기 최강 2004, 2007, 2013에 이어 2018도 우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레드삭스가 15년동안 4번의 우승을 일궈내며 21세기 메이저리그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레드삭스는 28일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LA 다저스를 5-1로 누르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1903, 1912, 1915, 1916, 1918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레드삭스는

이후 85년 동안 정상에 서지 못했다. 이를 밤비노의 저주라고 불렀다. 밤비노의 저주는 2004년, 레드삭스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풀렸다. 이후 레드삭스는 2007, 2013년에 이어 2018년에도 우승을 차지했다. 2000년대 들어 네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레드삭스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3회 우승)를 제치고 '21세기 최다 우승팀'으로 올라섰다. 보스톤언론의 스포츠 기자들은

2018년 레드삭스를 21세기 최고팀으로 평가했다. 레드삭스는 정규시즌에서 108승을 올리며 올해 메이저리그 최다승을 기록했다. 구단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승이기도 하다. 정규시즌에서 결코 4연패 이상을 기록하지 않았다. 레드삭스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올해 100승을 거둔 양키스를 3승 1패로 꺾었고, 103승 거둔 작년 챔피언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아메리칸챔피언시리즈에서 4승 1패로 꺾었으며, 월드시리즈에서 92승을 거둔 다저스를 4승 1패로 꺾었다. 포스트 시즌에서 11승 3패를 거뒀고 주목할 점은 원정경기에서 무려 7승 1패를 기록했다. 레드삭스는 정규시즌 및 포스트시

즌을 통틀어 총 119승을 거뒀다. MLB닷컴은 "레드삭스가 올해 거둔 119승은 1998년 양키스(125승),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120승)에 이은 역대 최다승 3위"라고 알렸다. 올해 장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18이닝의 혈투를 벌이다 끝내기 홈런을 맞아 3대 2로 경기를 내뒀던 상황에서의 4차전. 6회까지 4대 0으로 끌려갔지만 결국 동점, 역전을 기록하며 9대 6으로 경기를 뒤집었던 상황이다. 레드삭스는 2004년 아메리칸챔피언시리즈에서 가장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기도 했다. 양키스에게 시리즈 전적 3대 0으로 끌려가던 4차전에서

9회말 2-1로 패색이 짙었다. 더구나 양키스 마무리는 역대 최고의 클로저인 마리아노 리베라였다. 9회 2사 현재 다저스의 감독인 데이브 로버츠가 2루 도루에 성공하고 빌 필러의 동점타로 극적 동점을 이뤘고 연장전에서 데이비드 오티스의 결승홈런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후 내리 4연승을 거둬 월드시리즈 제패의 밑거름이 됐다. 올해부터 레드삭스 지휘봉을 잡으며 메이저리그 사령탑으로 데뷔한 알렉스 코라 감독은 파격적인 투수 기용과 대타작전으로 우승을 일궈냈다. 알렉스 코라 감독 역시 1998년부터 7년간 LA 다저스의 백업 내야요원으로 선수 생활 ▶▶9면으로 계속



고객님의 미래 목표 달성을 도와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인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Hiro Onuma, RFP®
Agent,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201 Jones Rd., 5th Floor
Waltham, MA 02451
781-398-9131
honuma@ft.newyorklife.com
www.hironuma.com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securitie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SMRU1731206 (Exp. 03/28/2019) ©2018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0

Insure. Invest. Retire.
Be good at life.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레드삭스 에이스 크리스 세일(우측)이 보스턴 로고를 보이며 함성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해설위원을 하차한 제리 레미가 짐 라이스를 가리키고 있다



전 포수 제이슨 베리텍(엄지 손가락)과 레드삭스 과거 스타 투수였던 커트 실링(우측)이 같은 차에 타고 있다.

레드삭스 우승퍼레이드 인파 거리 가득 메워

▶▶1면에 이어서
스, 스티브 피어스, 무키 베츠 등 현역 스타들은 물론 왕년의 레드삭스 스타 페드로 마티네스와 데이비드 오티즈도 함께 참여했다. 보일스턴 스트리트에서 레드삭스 에이스 세일은 보스턴 레드삭스 기호를 가리키며 팬들의 환호를 북돋았다.

보스턴 우승년도			
2001	Patriots	2011	Bruins
2003	Patriots	2013	Red Sox
2004	Red Sox	2014	Patriots
2004	Patriots	2016	Patriots
2007	Red Sox	2018	Red Sox
2008	Celtics		

레드삭스의 전 투수 커트 실링, 전 포수였던 제이슨 베리텍도 참가해 함께 즐겼다. 앞으로 레드삭스 해설가를 그만둔 제리 레미도 짐 라이스와 함께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관중들이 “제리 제리” 환호하자 짐 라이스를 가리키기도 했다.

2008년 우승을 차지했고, 보스턴 브루인스는 2011년 우승을 차지하며 보스턴은 스포츠의 도시란 등식을 세우는 데 일조했다.

레드삭스는 지난 15년간 4번을 우승해 2000년 이후 메이저리그 최다우승 팀이 됐다. 보스턴의 스포츠팀은 지난 2001년 이래 무려 11번을 우승했다. 시작은 2001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우승이었다. 이후 패트리어츠는 2003, 2004년 내리 우승했다. 패트리어츠는 2014, 2016년 두번 더 우승의 기쁨을 보스턴 팬들에게 안겼다.

10월 31일 날씨는 쌀쌀했지만 일반적으로 한겨울인 다른 종목 우승팀의 퍼레이드 보다는 훨씬 온화한 날씨여서 몇몇 관람객들은 어린 자녀를 함께 데리고 나와 즐겼다.

레드삭스는 2004년 85년만에 우승의 감격을 맛보며 본격적인 우승의 물꼬를 텄다. 2007년, 2013년 그리고 2018년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셀틱스는

젊은이들은 틈만 나면 “양키스 형편없다(Yankees Suck)” 를 외쳐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또 맥주 캔을 퍼레이드 참가중인 선수들에게 던지기도 했다. 선수들은 맥주 캔을 받아들거나 놓쳤고 알렉스 코라 감독은 관중이 던진 맥주병에 맞는 사태가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젊은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가 이곳 저곳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hsb@bostonkorea.com



보일스턴 스트리트에서 갖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퍼레이드에서 보스턴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8면에 이어서
을 했던 바 있다. 코라감독은 2004년 레드삭스에 입단, 2008년까지 내야수를 맡았다. 2007년 레드삭스 우승팀의 일원이기도 했다. 코라 감독은 부임 첫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일궈냈다. 부임 첫해 우승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 4명 밖에 없다.
이번 월드시리즈는 2004년 월드시리즈 레드삭스 우승팀 출신의 감독과 2007년 레드삭스 우승팀 감독의 대결이기도 했다. 또한 6월 28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레드삭스로 팀을 옮긴 스티브 피어스가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에 오른 것도 진기록이다
패자가 된 다저스는 불운한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월드시리즈 최종전에서

패한 다저스는 메이저리그 역대 11번째로 '2년 연속 월드시리즈 패자'가 되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세웠다. 다저스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는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홈런 3개를 허용해 역대 포스트시즌 최다 피홈런 2위가 됐다. 커쇼는 포스트시즌 30경기에서 22홈런을 내줬다.

hsb@bostonkorea.com

로웰지역 두번째 좋은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GE, 더 이상 MA주 최고 회사 아니다

한때 전세계 최대 기업이었던 GE 2000년 이후 계속 내리막길 겪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에 본사를 두고 있는 GE(General Electric Co.)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GE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회사가 되었다. 2016년에 본사를 매사추세츠 주로 이전한 이후 GE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였다.

지난 30일 GE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GE의 주가는 9% 가까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GE의 전체 회사 가치는 885억 달러로 떨어졌다.

반면에 월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Thermo Fisher Scientific Corp.)은 2% 정도 주가가 올라 회사의 시장 가치는 937억 달러가 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써모 피셔의 시장 가치가 가장 높다.

최근까지 매사추세츠 주 최대 기업이었던 GE는 작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GE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 증권거래위원회는 GE의 회계 기록과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

를 벌이고 있다. 증권 거래 위원회는 조사 범위를 확대해 GE의 전력부분에 대한 230억 달러 규모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GE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주식 배당금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주당 12센트였던 배당금은 주당 1센트로 줄어 들었다. GE에서 발표한 3분기 실적은 월스트리트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과 함께 주식 폭락으로 이어졌다.

2000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GE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최대

기업 가치를 지닌 회사였다. 당시 GE의 시장 가치는 6천억 달러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9천억 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2000년에 최고치를 찍은 GE는 이후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8년 경제 불황과 이후 계속된 재정 문제를 겪으면서 GE는 예전 명성을 회복하지 못했다.

2016년 8월 22일부터 GE는 공식적으로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회사가 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GE의 회사 가치는 2,810억 달러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GE 다음으로 기업 가치가 높은 6개 회사를 합친 것보다 가치가 높았다.

jsi@bostonkorea.com



GE의 몰락이 계속되면서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장 가치가 두 번째로 높은 회사로 내려앉았다



제이슨 맥켄(사진 가운데)은 16살이지만 이미 11번의 우승을 경험했다

16년 살면서 우승 경험 11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의 프로 스포츠를 즐기는 팬이라면 보스톤은 그야말로 최고의 도시다. 올해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면서 보스톤은 다시 한 번 스포츠 도시로서의 명성을 입증했다.

올해 보스톤 레드삭스 월드 시리즈 우승 퍼레이드에는 “사인 키드(Sign Kid)” 라고 알려진 16살 소년이 다시 한 번 등장했다. 2002년 패트리엇스가 36회 슈퍼볼에서 우승할 당시 태어난 이 소년은 자신의 평생 동안 보스톤이 얼마나 많은 우승 트로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포스터를 들

고 나타난다. 하버힐에 거주하는 제이슨 맥켄은 16살이지만 이미 보스톤이 11번의 우승 퍼레이드를 했다는 포스터를 들고 올해 레드삭스 우승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2002년 이후로 셀틱스는 1번, 브루인스도 1번, 레드삭스는 4번, 패트리엇스는 5번의 우승을 경험했다.

맥켄은 올해 퍼레이드를 포함해 보스톤 스포츠 팀 우승 퍼레이드에 8번 참여했다고 밝혔다. 보스톤의 스포츠 팀들이 우승할 때마다 사인 키드의 포스터도 업데이트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축 개업 25주년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MA주 교통 체증 갈수록 심해져

주민들 대다수 교통 정체 심해졌다 생각 세금 인상 통한 개선에는 찬반이 엇갈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슈에서 유권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 결과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교통 정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써픽 대학교와 보스톤 글로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정도가 4년 전에 비해 교통 정체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37%는 아주 안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22%가 어느 정도 안 좋아졌다고 답했다.

4년 전에 비해 매사추세츠 주의 교통 상황이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EducatedDriver.org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스톤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매일 평균 1시간 이상을 차 속에서 보낸다. 평생을 보스톤에서 일한다고 가정하면 500일 이상을 출퇴근하는 차량 속에서 보내게 된다는 의미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의회 차원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하고 있다.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보스톤을 비롯한 매사추세츠 주에서 발생하는 교통 체증의 주된 원인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중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MBTA도 교통 체증에 일조하고 있다. MBTA는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차량을 도입하고, 이용 요금 및 주차 요금 등을 인상했지만 대중 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나아지진 않았다.

세금이나 유료 고속도로의 이용 요금을 인상해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48.4%의 응답자가 요금 인상에 찬성하는 반면, 44.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향후 5년 동안 80억 달러를 투자해 대중 교통을 비롯한 매사추세츠 주의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제이 곤잘레스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베이커 주지사가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부유세 인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민의 60% 정도가 4년 전에 비해 교통 정체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17세 이강인이 발렌시아 1군 데뷔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17세 이강인 발렌시아 1군 구단 100년사 최초 아시아인

스페인 국왕컵 32강 1차전에 선발출전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한국 축구의 내일을 밝혀줄 기대주 이강인이 드디어 스페인 1군 데뷔전을 치렀다. 17세 어린 나이로 이룬 쾌거이고 구단 역사를 통틀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금자탑이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는 31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린 에브로와의 2018-2019 스페인 국왕컵 32강 원정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이 경기에 이강인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출전, 후반 38분 교체아웃 될 때까지 필드를 누비며 승리에 일조했다.

이강인은 비록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으나 골에 근접한 날카로운 슈팅을 비롯해 과감한

드리블과 패스를 시도하는 등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향후 정규리그(프리메라리가) 데뷔까지 기대케 하는 활약을 선보였다.

이날 발렌시아는 0-0 상황이던 후반 17분 상대 아틀레티카에게 먼저 일격을 맞고 끌려갔으나 후반 26분과 후반 35분 연속해서 터진 미나의 골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강인 개인적으로도 1군 데뷔전에서 뜻깊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로써 이강인은 구단의 새로운 페이지를 작성했다. 1919년 창단한 발렌시아 역사상 아시아 선수가 1군에서 공식 데뷔전을 치른 것은 이강인이 처음이다.

lastuncle@news1.kr

드림 케이터링 DREAM CATERING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한식 및 중식
지금 경험하세요!



MR SUSHI, TD GARDEN 보스톤 셀틱스 VIP룸 일식, 신신마트, SUSHI YA 등에서 일하시는 20년 이상의 파트별 전문 요리사들이 일식, 한식, 중식을 예산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서, 현재 보스톤 커플리에 위치한 THE COLONNADE BOSTON HOTEL을 비롯하여 HARVARD CLUB, WINCHESTER COUNTRY CLUB 외에도 소규모 회사파티, 학교, 학원, 각종 한인들 단체모임에 2001년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781.308.2073(줄리 안)



SINCE 1987
MR. SUSHI
ARLINGTON



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맞아야 시기 결정...최대한 빨리"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한미 국방부장관이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군사당국의 이번 합의는 한국군 주도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꾸리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도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 하지만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 발표시에는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이라는 문구로 대체한 바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송영무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께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는 이번에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시행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 능력(IOC) 평가를 위해 계속 협력하는 등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조건에 부합해야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전작권을) 공약하고 검토한 것은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단계적 검증 관련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 연합사 체제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데 앞으로는 서로 뒤바뀌게 된다.

미군은 다른 나라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괴식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논의 초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번 합의는 미군의 유일한 예외로 보인다.

미군이 이같은 지휘 구조에 대해 공식 합의를 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기반 아래 한국군의 군사 능력을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군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역내 안보환경 이외에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및 전시 북한 핵·미사일 필수 대응 능력 등을 강조

해왔다.

이번 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체제 발전을 위해 마련됐는데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 해체, 미군의 전시 지원 여부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는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데 합의했다. 연합사·유엔군사령부의 지위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시에 미군 전략자산 투입 등 실제 작전을 주관할 각 군별 구성군사령관의 경우 일부 미군이 맡도록 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돼도) 각 구성군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연합사령관 지침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구성군사령관을 모두 미군이 맡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폴 라이언,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지 못해

"행정명령에 의한 폐지는 위험 소지도 있어" "다른 이슈로 중간선거 관심 분산한다" 지적도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폴 라이언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캔터키 WVLK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법을 수정하려고 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보수주의자로서 우리는 헌법을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출생시민권' 폐지 발언은 위험 소지도 있다고 라이언 의장은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이민자'(unchecked illegal immigration)를 해결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 14조에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라이언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몇 시간 뒤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라이언 의장 외에도 초당적 반발을 초래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조항을 삭제할 힘이 없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른 이슈들로 관심을 분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척 그래스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출생시민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이 아니라 헌법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애플, 홈버튼 없앤 새 아이패드 프로 공개

헤드폰 잭 없애...두께 전작대비 15% 얇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애플이 홈버튼과 헤드폰 잭을 없애는 등 외관에 큰 변화를 준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30일 공개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에어, 맥미니를 선보였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전작대비 두께가 15% 얇아지고 헤드폰 잭과 홈버튼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기기 조작 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려면 화면의 특정 부분을 쓸어내야(스 와이프) 한다.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A12X 바이오닉이다.

또 새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의 안면인식

기능인 페이스ID를 지원한다. 화면 크기는 11인치와 12.9인치로 나뉜다. 가격은 11인치 제품이 799달러(91만원), 12.9인치 모델이 999달러(113만8000원)부터 시작한다.

이 밖에도 애플은 전작보다 25% 가벼워진 신형 맥북에어를 공개했다. 화면 크기는 13.3인치, 무게는 2.75파운드(1.24kg)다.

애플 측은 새 맥북에어를 100%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약 50% 줄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가격은 1199달러(136만6000원)부터 시작한다.

이날 공개된 맥미니는 4년 만에 나온 2세대 제품이다. 외관은 전작과 유사하지만, 쿼드코어 인텔 프로세서와 USB-C 선더볼트 3 포트 등을 지원한다.

pasta@news1.kr



뉴욕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 전시된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모습과 팀 쿡 애플 CEO (오른쪽)



삼성전자가 상표 출원한 '삼성 인피니티-V'

삼성 폴더블폰 이름은 인피니티-V? 특허청에 상표출원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펼치면 태블릿PC, 멀티태스킹 제공"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폴더블폰) 이름은 무엇일까. 갤럭시노트·S시리즈와 별도 브랜드로 가져간다는 삼성전자의 방침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폴더블폰 이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31일 유명 스마트폰 트위터리안인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이름을 '인피니티-V'로 명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특허청에 국내 상표 및 일반 상표로 '삼성 인피니티-V'를 출원했다.

상표를 출원했지만 실제 이 이름을 사용하지는 두고보아야 한다. 다만, 고동진 삼성전자 IM(IT&Mobile)부문장(사장)이 폴더블폰을 별도의 브랜드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이름이 붙여질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고 사장은 지난 8월10일 갤럭시노트9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반짝하려고 폴더블폰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갤럭시S, 갤럭시노트처럼 별도의 브랜드로 론칭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열린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는 폴더블폰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 펼쳤을 때는 태블릿PC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동시에 여러 작업이 가능한 멀티태스킹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새로운 폼팩터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앱) 최적화, 특화 앱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이 많은데 앱 개발자들과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주 미국에서 열리는 개발자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피니티-V 상표 출원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13년 소송끝 징용 피해자들 승소, 한일관계 · 사법농단 파장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재판거래 대상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피해자들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로 한일 외교관계와 사법농단 수사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유일한 생존 원고 이춘식씨(94)를 포함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13년8개월, 대법원에 재상고가 접수된지 5년2개월만의 최종 결론이다.

한일관계 그러나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강경대응 검토를 시사해 배상금 지급이 실제 이뤄

질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한일 간 외교적 긴장도 높아질 공산이 크다.

이번 전합 판결의 핵심 쟁점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간 관계였다. 대법원은 이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위자료 청구권'으로 해석해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확인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체불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일본이 한일청구권협

정에 따라 전달한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에도 '강제동원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다른 국민을 강제동원해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며 총 12억2000만달러를 요구, 이 중 3억6400만달러를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과정에서 총 12억2000만달러를 요구했는데도 정작 협정은 3억달러(무상)로 타결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권'도 포함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일한 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할아버지(94)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 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들 개인청구권도 소멸됐다는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특히 이번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 이같은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주일 한국대사도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패소한 신일철주금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일본정부 대응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smith@news1.kr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판에...구속기소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명박(MB) 정부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1일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날(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정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

에서 댓글을 달게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이후 특수단은 경찰·군·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76회를 진행했고 △현장 압수물 1440점 △디지털 증거물 1만 155점을 확보하는 한편 참고인 43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4만여건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뒀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 노동조합 비난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유사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단은 당시 보안국장 등 관련자 8명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eonki@news1.kr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엘프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연말 연시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5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확장
오픈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롤 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NOV. 2nd - NOV. 8th, 2018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RAISED OCTOPUS WITH GOCHUJANG AIOLI

MEET THE EXECUTIVE CHEF AT JUNGSIK AND LEARN HOW TO COOK LIKE MICHELIN TWO-STAR FOOD!
H마트와 미술랭 투스타 레스토랑 "정식"이 알리는 특별한 요리를 만나보세요!

SUMMER ENDS SAVING STARTS

Please turn back your clocks 1 hour on Nov. 4th (Sun.) at 2AM.
11월 4일 (일요일) 새벽 2시부터 섬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주세요!

RESTAURANTEU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CONTACT info@marketeatery.com

Follow us @hmartofficial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79 lb.	Kabocha 단호박 \$0.88 lb.	Ginger 생강 \$1.49 lb.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미디엄 \$1.79 lb.	Pineapple 파인애플 \$1.99 ea.
JINGA Tofu 진가네 두부 Soft/Firm - 16oz/pkg \$0.99	Lotus Root 연근 \$1.88 lb.	Red Seedless Grape 적포도 \$1.79 lb.	Gobo 우엉 \$1.99 lb.	Packed Garlic 팩마늘 5oz/pkg 2\$3 pkg./for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Tenderloin (Whole Piece) 소안심 \$7.99 lb.	Beef Rib Eye Steak 등심/스테이크 \$9.99 lb.
Boneless Pork Shoulder Butt 돼지 목전지살 \$3.99 lb.	Bone-in Pork Rib/Belly Chunk 갈비(삼겹살)/수육 \$5.99 lb.
Chicken Wings 닭날개 \$2.99 lb.	Marinated Sliced Beef Ribeye-Bulgogi 양념(소불고기) \$6.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Masago 마사고 미역(생) \$10.99 lb.	Squid Tube 오징어 튜브 \$3.99 lb.
Head-on Shrimp 머리새우 \$5.99 lb.	TONGTONGAY BokJum Anchovy 홍홍배/농염멸치 \$16.99 lb.
Striped Bass 농어 500-800g \$3.49 lb.	Blackfish 활물석 \$11.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HARU HARU Medium Grain Mixed Rice 하루하루 마이알 15 lbs. \$10.99	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oz x 100pkgs. \$10.99
CJ Bibigo Dumpling CJ 비비고 왕고기 만두 Pork & Veg./Chicken & Veg. 2 lbs. \$7.99	HAIOPEUM Premium Roasted Sesaweed Green Layer 해오름 반도독 도시락김 Orig./Peach 1.15oz x 200/pkg. \$2.99

HAPPY THANKSGIVING

이번 추수감사절은 H마트에서 준비하세요!

SHIRAKINU 100% Pure Sesame Oil 시라키누 참기름 68 fl.oz. \$9.99	THREE CRAB BRAND Fish Sauce 삼개 멸치 액젓 200cc. \$3.99	BEKSUB Sweet Korean Pancake Mix 백설 호떡믹스 Drink/Green Tea - 14.1oz. \$3.99	GOMPYE Wheat Flour 곰피우 밀가루 5.5 lbs. \$3.99	CHORP DONG Wheat Flakes with Potato 참쌀떡이 감자 수제비 2.2 lbs. \$3.99
PULMUKKE Noodles w/ Fire-roasted Black Bean Sauce 풀무켄 짬뽕 짜짜면 23.2oz. \$4.99	HAIOPEUM Canned Sea Shell 해오름 해물조림 14.1oz. \$4.99	ORION Gosemi Cracker 오리온 고소미 크래커 11.2oz. \$3.99	100 POKY 갈릭코 포키 Stawberry/Chocolate/Caramel & Cream 3.51 x 4.75oz. \$2.99	SAMYDOK Black Bean Calcium Soy Milk 삼육 검은콩 칼슘 두유 168ml x 24oz./box \$15.99
ITOEN Drink 이토엔 드링크 All Year/Hot/Cold 500ml \$3.99	I WANT Paper Towel 12x16/pkg 아이원트 페이퍼 타월 1.21 lbs. x 524/59 \$10.99	KITCHEN ART Good Morning Ceramic Kettle 키친아트 세라믹 주전자 3.21 lbs. x 524/59 \$16.99	ZOUZUSHI Electric Dispensing Pot 조지루시 전기 보온포트 2.21 lbs. x 582/59 \$72.99	HELLO HOME Glass Jar 헬로홈 유리주병 0.9 lbs. x 510/59 \$7.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prints/typo in this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com

'폭행 영상' 양진호 회장...경찰, 합동수사전담팀 꾸려 수사

(수원=뉴스1) 권혁민, 유재규 기자 = '직원 폭행과 영상 촬영 지시' 및 '워크숍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위디스크 대표이자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합동수사전담팀을 꾸린다.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양 대표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TF팀'을 구성,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 실소유자 양 대표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 소유의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영상물들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양 대표의 폭행 등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기존 웹하드 수사TF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해 15명 내외의 합

동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뉴스타파는 30일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사무실서 前 직원 무차별폭행' 영상을 공개했고, 31일에는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일본도로 닭잡기 '공포의 워크숍'이라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직원이 비닐 하우스에 있는 닭에게 활을 쏘는 장면이 담겼다. 직원이 닭을 맞지 못하자 양 회장은 "장난해"라며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된 폭행 영상은 2015년 4월에 촬영된 것으로 양 회장은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폭행을 당한 전 회사 직원 및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점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이 자신의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불법 영상물 가운데 일명 '야동'이 있다면 성폭력처벌특별법 혐의도 받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30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이날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사무실 안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욕설하며 뺨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강요하는 장면도 나온다

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수사팀을 통해 이미 수사해 오던 양 대표의 불법

영상물 유통 등 웹하드 불법행위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m0712@news1.kr

이재명, 3가지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성남=뉴스1) 권혁민, 유재규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접수된 고발 혐의 7가지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항은 경찰 수사 단계의 의견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에 첫 출석해 약 1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만 3일만에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개월이 조금 더 남은 시점이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혐의는 모두 7가지.

기소의견 송치는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관련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故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중점 살피왔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자택과 신체 및 성남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실상 소환 초읽기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지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와 성남시청에서 압수한 컴퓨터 파일 분석을 이 지사의 경찰 소환 전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움직여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던 친형을 강제입원을 시도한 정

황이 있는지의 직권남용죄를 살피고 있다.

불기소의견 송치는 △여배우 스캔들(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이다.

배우 김부선씨와 연관된 여배우 스캔들은 이 지사를 끈질기게 따라다닌 꼬리표다. 지난달 16일 이 지사가 스캔들 논란을 털어내기 위한 자진 신체검증에 나서며 재점화됐다.

김부선씨는 이 지사의 은밀한 특정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증을 진행한 아주대병원측은 "특진 결과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흔 및 수술적 절제 후 복합 반흔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밝힌 공통된 소견으로는 점을 뺀 흔적이나 혹은 레이저 시술, 봉합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발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자신에게 고발된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10시간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친형)강제 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것으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나는 법리논쟁이 길어졌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 등 정신 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자에 해당되는 (경찰과의)논쟁이 있었다"며 "입원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위였음을 분명히 소명했다"고 했다. hm0712@news1.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李총리, 남북 지해공 적대행위 전면중지에 "새로운 날 시작"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이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1일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오늘 0시를 기해 남북한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북한 해안포 포문 폐쇄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남북은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적

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날(10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담혀 있다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보스톤 서쪽, 새기게, 좋은 위치. 연매상 32만불 이상
플랜트 + 드랍오프 스토어
Asking \$160,000

Business NEW

네일샵 매매
보스톤 북쪽, 3760 스퀘어피트, 새로 단장된 가게
Asking \$490,000

Residential NEW

주거 렌트
에버렛에 위치, 1,700 Sq. Ft. 넓은 주차공간 보스톤과 인접한 위치
월 렌트 \$2,400

Commercial NEW

커머셜 리스
369 Mass. Ave, Arlington, 알링턴 센터, 넓은 주차장, 1,000 s.f. 월 \$3,000 + NNN, 네일, 오피스, 세탁소, 드롭오프 스토어로 적합. Plaza 에 Dunkin Donuts 입주. Lots of foot traffic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Commercial NEW

Fish 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NEW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Commercial NEW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Residential NEW

럭셔리 콘도 매매
1 Charles St. South Unit 812 Boston Refined luxury residence at 1 Charles, luxury full service 2Bed 2Bath condo top of the line finishes throughout, 1 Garage space, Boston Common, Newbury st 과 근접. 좋은 위치
Asking \$1,299,000

Business NEW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sking \$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Shrewsbury Full Plant 세탁소 White City Mall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Lots of foot traffic 안정된 수입
Asking \$399,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풀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풀 플랜트 물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Price Reduced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9,000

Business NEW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Business NEW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NEW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 연매상 \$250,000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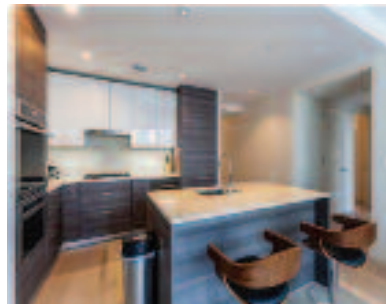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7 Lilac Court, Acton, MA
Asking price: \$420,000
Listing Agent: Jenn Harloon
Phone: 508.331.2092



Just listed: Condominium
1 Franklin St. Unit 1205
Boston, MA 02110
Asking price: \$1,725,000
Listing Agent: Clara Paik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Frank Mcmanus
317.690.6187

NEW LISTINGS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84 Wellesley Road
Belmont, MA
Asking price: \$2,800,000
Listing Agent: Frank Mcmanus



Just listed: Single family
292 Mendon Road
Sut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Single family
160 Clinton Street
Hopkinton, MA
Asking price: \$589,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Multifamily
23 Everett St.
Boston, MA 02128
Asking price: \$8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감사하자! 아프지 말고.'

감사를 전하는 '추수감사절'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이 시간이 다가오면, 한 해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도달했음을 느낀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모든이가 이 한해동안 맺었던 많은 관계의 끝을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지어 질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하지만, 자의 이견, 타의 이견 상처 받은 관계를 경험하였다면, 감사한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 한 때 너무나 다정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잊고 싶어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믿고 의지 하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무시의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다면 어떠할까? 미워하고 싶지 않는데 미움이 스물 스물 올라오는 현실의 삶 앞에서 생의 감사를 느끼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달마대사의 말이 생각난다. '마음, 마음, 마음이며. 참으로 알 수가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응졸해지면 바늘 하나 찌를 자리가 없으니.'

바늘조차 찌를 수 없을 만큼 오그라진 마음 앞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충고를 받아들이기 힘이 든다. 감사하는 마음이 주는 행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죽어서 잊혀지는 상처라면 아예 죽어버리고 싶다고 울부짖는 이들에게 생의 감사는 사치일 수 밖에 없다. 미움은 사랑보다 엄청 힘이 세서, 미움 앞에서 사랑은 쉽게 힘을 잃고 만다.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기까지는 1분밖에 안걸리고,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1시간밖에 안걸리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으며, 누군가를 잊는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깊은 상처가 주는 미움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 혹시, 자신이 준 상처때문에 생의 감사가 느껴지지 않을만큼 미움의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가 없는지 한번 정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타인에게 준 상처를 인식할 수 있다

면, 그만큼 자기성찰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인식하지만, 자신이 타인에게 준 상처를 인식하지 못한다. 설령,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과의 말을 하기보다 자기 방어에 급급해진다. 특히, 부부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드러난다. 대부분의 커플들은 테라피치료 처음부터 서로에게 받은 상처를 편안히 토로하고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지 않는다. 오랫동안 지내왔던 오그라진 마음의 원인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상처가 드러나면서 부부는 마치 성난 두 자동차가 필자에게 달려들듯이 으르렁, 으르렁 하기 시작한다. 자신도 모르는 치부를 마구 퍼붓는 일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그러다보니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어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커플 테라피의 환경 안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듣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테라피 과정에서도 싸움은 일어난다. 다른 점이 있다면, 테라피를 통해서 할퀴는 싸움의 전쟁터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참고 들어 줄 수 있는 내성을 갖게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속 안에 쌓여있던 배우자에 대한 분노, 고통, 원한의 감정을 표현하고, 들어주다보면, 어느 순간 자기 방어 없이 서로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커플들은 커플 테라피를 시작하면서, 테라피가 끝날 때 마다 집에 돌아가 더 엄청 많이 마음안에 갈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잊혀졌던 아픔, 잊고 싶은 아픔이 드러나면서 필자를 계속 만나야 하나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집으로 돌아와 부부싸움이 잦아지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이들 커플들의 관계회복은 서로 '용서'의 길을 통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를 배워가는 과정이 우선이라 말하고 있지만, 상처 받고 상처주는 관계일수록 쌓여왔던 관계의 상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서'의 과정은

무척 버겁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두가지가 '죄를 짓지 않는 일' 과 '용서'하는 일이라고 송봉모 신부가 말을 할 정도로 용서를 배우는 과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용서의 과정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망각의 함속에 넣어두었던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 내어, 잊고 싶은 가해자를 기억해야 하고, 비난해야 하고, 잊었다고 생각한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여다 보아야 하는데, 이제와서 구태여 왜 해야 하나하는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감사를 느끼며 살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 행복해 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로라와 빌은 10년동안의 결혼생활이 고통스러웠다. 서로를 할퀴는 싸움은 거의 매일 일어났고, 7살, 5살의 어린 자식들 앞에서 싸움을 계속하는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몇개월의 테라피 과정이 이루어지던 중, 로라는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다. 아주 오랫동안 잊었던 자신의 상처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첫 임신과정에서 유산을 겪었다. 하지만, 그때의 유산 과정에서 자신이 남편에게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유산기가 있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로라는 잠시 휴직을 하며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심한 복통이 오면서 로라는 하혈이 시작되었다. 로라는 남편을 소리지르고, 얼른 응급 요청을 하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쏟아지는 피를 보면서 빌은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졌다. 그러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로라옆에서 도와주기보다는 집 밖으로 피해버렸다. 그동안, 로라는 스스로 응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자신이 빌에게 실망한 마음을 생각 할 기력이 없었다. 그리고, 로라와 빌은 다시 임신을 하려 주력을 했다. 첫째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그러면서 둘째애가 태어났다. 로라와 빌의 대화는 점점 비즈니스적으로 변했고, 서로서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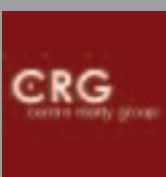
면대면 해졌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로라의 은닉되었던 '감정적 부상(Emo-tional Injury)'이 드러나면서, 로라와 빌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로라는 빌에 대한 미움으로 분노, 화, 적개심, 복수심이라는 마음의 독으로 자신이 점점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었음을 알게되었다. 빌을 용서하겠다고 결심을 하고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러자, 빌보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로라는 임신중, 유산증상이 보이니 휴직을 하고 몸 조심을 해야 한다는 전문의 말을 들었다. 로라는 휴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는 중에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이 그때 휴직을 빨리하지 않아서 아이를 잃었다는 후회와 자책을 솔직히 표현하면서, 빌이 아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빌도 로라의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으로 전문의의 말을 듣지 않은 로라를 용서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자신이 지내왔던 분노를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었고, 자신의 냉랭했던 비겁함과 응졸한 편견을 사과했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진정한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자. 이해인 수녀의 '용서의 기쁨'의 시로서 칼럼을 마무리 하고록 한다.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용서 받는 겸손이라고 일기에 썼습니다./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직이 고백합니다./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 번 크게 용서하는 행동이, 더 힘있는 기도일 때도 많습니다./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우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Anna Jung
617.780.1675



Sung Bin Oh
978.505.3736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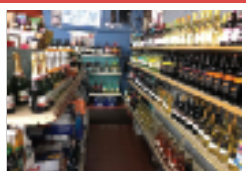
금주의 LISTINGS

 <p>Boston 주변의 바쁜 지역 downtown 10분거리 성업중인 laundromat</p> <p>ASKING \$450,000</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p> <p>ASKING \$170,000</p>	 <p>북부 Boston의 성업중인 Drop Shop을 원하십니까? 단돈 \$50,000</p> <p>ASKING \$5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p>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p> <p>ASKING \$160,000</p>	 <p>로드아일랜드 "뉴-포트 맨손" 관광지역 한 복판에 성업중인 스시 식당</p> <p>ASKING \$100,000</p>

SOLD

1. 퀴즈 마리아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Allston, Brighton 한국 식당</p> <p>ASKING \$168,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Korean BBQ • Korean Buffet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치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야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안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요금정보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교포장년회	978-407-7554
국제대한교포장년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교포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세정인협회	781-854-8880
사학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교회네트워크	781-424-5269
F자민중교회연합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203-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침례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978-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선한목자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 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룬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준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탕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미음식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골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롬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펀	617-787-1735
헤어 크레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엔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양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맥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드)내과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중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캠브리지덴탈	617-492-8210
캐논팩트덴탈서비스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케이비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온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살롱치	978-263-4592

마이클 잭슨은 싱거?

마이클 잭슨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한 세대를 풍미했을 뿐 아니라 팝뮤직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으며,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으니까. 그는 다섯 살부터 무대에 선 직업 가수였다. 영어로 singer이다. 음악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 단어 singer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singer는 [siŋə] 즉 [싱어]라 발음한다.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사람은 “싱어송라이터”라 한다. 그런데 필자의 지인인 렌 카츠를 포함한 일부 미국인들은 singer를 [싱거]라 발음한다. 표준영어 규칙에서보자면 이는 잘못된 발음이다. 카츠가 미국인이고 내가 외국인이지만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인정하든 말든 난 언어학자니까. 왜 그럴까?

영어형태론의 ABC에 속하는 내용이지만 singer란 단어는 동사 sing에 사람을 뜻하는 어미 -er을 붙여서 만든 단어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발음도 sing[싱] + -er[어]로 이루어진다. 전문용어로는 이를 음절구조라 한다. sing이 하나의 음절이고, -er도 하나의 음절이다.

그럼 비슷하게 생긴 hunger (배고픔)란 단어를 보자. 이 단어는 hung에다가 -er을 붙인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hunger이다. 원래부터 -er이 있는 이 단어는 singer와는 다른 음절구조를 가진다. 다소 전문적인 말이지만

, 음절이란 모음을 중심으로 앞뒤로 자음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hunger에는 모음이 u, e 두 개가 있으므로 앞뒤 자음들이 이 모음에 연결되어 음절을 구성한다. 즉, hunger는 [hʌŋ + gə], 다시 말해 [헝거]라는 음절구조를 가진다. 이에 반해, singer는 sing이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고, 여기에 -er이 나중에 추가된 것이므로 sing의 -ng는 나중에 오는 -er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웃절이란 뜻의 hanger는 어떻게 발음할까? 동사 hang에 사람을 나타내는 -er을 붙였으니까, 당연히 [hæŋə] 즉 [헝어]로 발음된다. 그런데도 일부 미국사람들이 이 단어를 [헝거]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의 지인 렌 카츠는 일관성 있게 잘못 발음한다. 그는 singer는 [싱거], hanger는 [헝거]로 발음한다. 필자는 그가 그럴 줄 알았다. singer를 마치 hunger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단어로 생각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hanger에 대해서도 같은 규칙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잘못’ 발음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잘못’ 이 아니라 ‘다르게’ 발음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often 이라 단어는 사전에 [ɒfən] 즉 [오펜]으로 나와 있지만 적지 않은 수의 미국인들은 [ɒftən] 즉 [오프텐]이라 발음한다. 이쯤 되면 ‘잘못’ 된 발음이 아니라 ‘다른’ 발음일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필자에게는 아직도 singer를 [싱거]로 발음하는 것이 ‘다른’ 발음이 아니라 ‘잘못’ 된 발음으로 보인다. 필자도 나이를 먹어 가는가보다.

하긴 규칙이란 것이 언제나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young이란 단어의 비교급은 younger이다. 아까 말한 규칙에 따르자면 younger는 young에다가 비교급 어미 -er를 붙였으니까 [jʌŋgə] 즉 [영어]로 발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단어는 [jʌŋgə]라 발음된다. 어미가 붙은 singer가 아니라 원래부터 한 단어인 hunger 처럼 행동한다. 너 왜 그러냐고 영어에게 따

져볼 수도 없고, 참 복잡하다.

아무리 예외가 많아도 규칙을 알아두면 효과적이다. 그러니 원래 단어에 포함된 -er이면 [-거], 동사에 추가된 -er이면 [-어]라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미 -er이 붙은 doppelganger는 [도플갱어], gunglinger는 [건슬링어], springer는 [스프링어]로 발음하고, 원래부터 -er이 있는 finger는 [핑거], anger는 [앵거]로 발음한다. 그럼 stinger는 어떻게 발음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스팅거] 미사일로 유명하지만, 사전식으로 발음하자면 [스팅어]가 맞는다. 동사 sting에 사람을 나타내는 어미 -er이 붙은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잭슨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티보가 대리점주를 모집합니다!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

-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 초기 자본 없이 창업 가능
- 전화 한대면 남는 시간을 이용해 창업 가능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Nazarene Parish of Central District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예비신자 교리반
9월 26일(수) 8pm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of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동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HAPPY
해피돌상

고용권 전통상 대어 (백암산, 등미)
한국 최대의 전국적인 전통상 거점상가인,
오송장 내 버크셔 헤서웨이 매점 (4989)에서
저렴하고 푸짐하게!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4h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가을맞이 생활가전 · 건강용품

감사대세일

하이트론스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가을 준비하세요~

가을상품 대방출! 환상적인 가격! 최상의 조건!

하이트론스에서 만나보세요~ 세일기간 : 10월 30일까지

전자파없는 온수매트 **쌍쌍한 화장기 생활 건강 필수품** **전품목 10% 세일**



국기인증 온수매트
경동 나비엔
Navien



포근하고 따뜻한 숙면을 위한
워셔블 기모 극세사
온열매트
물세탁
"전자파가 없습니다"



SteamBoiler
스팀보일러
스팀보이 온수매트



7월호남
ILWOOL

물걸레 청소기 / 다이슨 청소기 / 댄채 쿡 / LG 공기청정기 / 건강기기등... **히트상품 대세일**

<p>댄채 "밥알이 선다 밥맛이 선다"</p> 	<p>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후디나엔진! 냄새, 린플없이 깨끗하게~</p> 	<p>물걸레 청소기 es230</p>  <p>기능 업그레이드 성능 업그레이드</p>	<p>dyson 다이슨 제품 전문 전시장</p>  <p>하이트론스 다이슨 딜러업 획득! 6개월 무이자 할부</p>	
<p>Fuji 발마사지기</p> 	<p>반신욕기</p> 	<p>무릎사우나</p>  <p>무릎압구 조절 가능</p>	<p>누리아이 5800 신제품출시로 더욱 성능이 우수</p> 	<p>스마트비데 SB 1000 Electric</p> 

AUTUMN SALE

댄채 / 대우 / LG / 삼성
김치냉장고 대세일

가을맞이 스페셜
(10월 30일까지)
프랜징 김치냉장고 구입시
위니아 공기청정기 무료

 <p>221L \$3199.99</p>	 <p>180L \$3499.99</p>	 <p>220L \$2799.99</p>	 <p>zipel \$2699.99</p>	 <p>DANVOO DG Klasse \$2199.99</p>	 <p>김치냉장고 LG DIOS \$2699.99</p>	 <p>Special 220L \$1649.99</p>	 <p>220L \$699.99</p>	 <p>세계최초! 세상에 없던 무료 관리기 LG styler \$1999.99 → \$1549.99</p>
---	---	---	--	---	--	---	--	---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ORDER NOW → www.hitrons.com

<p>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p>	<p>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p>	<p>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p>	<p>PA Branch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p>	<p>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p>	<p>Mattress- 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p>
---	--	---	--	--	---

'동네사람들', 마동석 선생님의 처절 액션(ft.김새론)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배우 마동석이 김새론과 손잡고 범 죄 스릴러 영화 '동네사람들'로 돌아온다. '범죄도시' 때보다 한층 처절하고 드라마가 살아있는 액션을 선보인 마동석이 비수기 또 한번 흥행 출사표를 던진다.

'동네사람들'은 한적한 시골 마을, 여고생이 사라진 가운데 기간제 교사로 부임해 온 체육교사 기철(마동석 분)이 실종된 여고생의 유일한 친구 유진(김새론 분)을 도와 수상한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 스릴러 영화다.

마동석이 사건 해결에 나서는 체육교사 기철 역을, 김새론이 사라진 친구의 흔적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여고생 유진 역을 맡았다. 더불어 이상엽, 진선규, 장광 등이 출연했다.

지난해 대박을 터뜨린 '범죄도시'에 이어 마동석은 '부라더'와 '챔피언'에 이어 '원더풀 고스트' '성난황소' 등의 작품들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특히 '동네사람들'은 '범죄도시'에서 보여준 마동석의 액션 캐릭터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작품인데

다 진선규와 재회를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진선규는 '범죄도시'에 이어 또 한 번 악역으로 마동석과 재회한 것에 대해 "동석이 형을 다시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좋았다. 다시 하는 것만으로도 좋더라"면서 "시기상으로 위성락 역을 하고 나서 바로 하게 됐는데 어떤 심리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주기보다 그때 당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표현할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 생각해 작품에 임했다"고 기쁨을 표했다.

마동석은 이번 영화에서 복싱 코치 출신 기간제 체육 교사 역을 맡았다. 여학생들과 어울리는 신이 많았던 만큼, 실제 200여명의 여고생들이 촬영에 참여했다. 마동석은 이에 대해 "여고생 200명과 촬영을 했다. 실제 배우가 아닌 여고생이 많이 와서 굉장히 혼란의 도가니였다"고 밝히 웃음을 지었다.

또 "많은 조감독이 있었고,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같이 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생각보다 저는 놀란게 여고생 역을 해주신 진짜 실

제 학생들이 연기도 잘하고, 애드리브도 많이 쳐주시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놀라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시 한 번 액션 영화로 돌아온 마동석에게는 '이미지 소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마동석은 "'부당거래' '심야의 FM' 때부터 저에게 형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 이후에 형사 역을 6번 더했고 '범죄도시'까지 왔다. '마동석화'한 캐릭터를 원하는 감독님 제작자가 준 시나리오가 거기 맞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피로도가 있더라도 극 안에서 마동석화 시킨 캐릭터 원하면 끝까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캐릭터 해볼 생각 안 하느냐"고 한다. 있다. 하지만 내게 모든 영화가 들어오지 않고 그런 영화가 주로 들어온다. 지금 들어온 영화들도 5,6년 전에 들어온 영화들이다. 현재도 촬영 중이고 개인적으로 영화가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상업적으로 부진했을 때 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부산행' '범죄도시' 거치면서 그런 얘기는 못 듣더라.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짚었다.

한편 '동네사람들'은 11월 개봉 예정이다. eujenej@news1.kr

11월 4일 - 11월 1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쥐띠 행운이 기대되는</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행운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뜻밖의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이 있겠습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는 주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모든 것을 주물러서 황금을 만든다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상대가 필요하군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대하면 사랑의 여신이 함께 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5, 8일 길일. 7,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소띠 능력이 돋보이고</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문서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는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큰 거래나 교섭에서 자신의 능력이 돋보일 것입니다. ● 금전: 차츰 금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과 생각이 일치되어 돕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 애정: 이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4, 9일 길일. 8,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범띠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쉽게 얻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생해서 얻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 금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역량이 미칠 수 있는 한도까지 선을 그어놓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내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평화를 찾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7, 10일 길일. 6, 9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토끼띠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여</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아무런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새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 금전: 금전통용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그동안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이성에게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성관계는 더 좋아지고 사랑도 무리없어가고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6, 8일 길일. 4,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용띠 책임을 다하도록</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세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자신에게 온 복을 밀어내는 것이 됩니다. ● 금전: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나중에 가서 실망하거나 헛수고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오해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4, 6일 길일. 5,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뱀띠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야만</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어떠한 일이든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야만 성과도 있고 자신의 품위도 지킬 수 있습니다. ● 금전: 큰돈을 투자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일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5, 10일 길일. 4, 6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말띠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때이니 답답해도 묵묵부답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왜곡된 진실을 알게 됩니다. ● 금전: 절제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쓰고 싶은 것을 다 쓰면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주려고 해보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양띠 기다리면서 찬스를 잡아야</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기다리면서 찬스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전진보다는 잠시 후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재물은 매일매일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인 상태입니다. 주말쯤에나 가서야 소망이 이루어져서 소득이 따르겠습니다. ● 애정: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 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위의 힘을 빌려주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0일 길일. 4, 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원숭이띠 넓고 큰마음으로</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지나친 근심걱정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넓고 큰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심신의 편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고통 뒤에 행운이 따르는 운세로 회복의 기쁨이 마련되었습니다. 떨어졌던 신용도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 애정: 옛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감상에 젖은 추억으로 마음만 살랑살랑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닭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하는 일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후원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자신을 가지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시켜도 되겠습니다. ● 애정: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평상시와 다른 것을 해주세요.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개띠 쌓아둔 덕을 바탕으로</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지금껏 쌓아둔 덕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예와 일에 있어서 행운이 따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도 성사되었습니다. ● 금전: 계획을 잘 세워서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업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유리한 운이 따르겠습니다. ● 애정: 현명한 판단 하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결혼의 계기가 주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6, 10일 길일. 5, 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돼지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나뭇잎과 같습니다. 나뭇잎이 너무 무성한 나무는 열매가 적은 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은 실행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남의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면 마음이 불편해지지 자기 것이 아니면 외면해 버리세요. ● 애정: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대화로서 풀어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4, 7일 길일. 6, 9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7
뉴장수갈비에서 일할 웨이추레스(Full Time, Part Time) 구합니다. .
T. 781-272-3787

8/17
알링턴 미스터 스시에서 파트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T. 781-308-2073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채용 공고

모집직종: 사무총장
자격조건:

- 1) 영주권, 시민권자, 미국내 취업 가능자
- 2) 이중언어 (Primary: 영어, Secondary: 한국어)
- 3) 기본적인 컴퓨터 능숙

급여: \$5,000/1년, 지급시점과 형식은 추후 협의
근무시간: 협회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 재택 근무 가능
근무소입: 협회 임원과 추후 논의
지원방법: newenglandkaci@gmail.com, 2018년 9월30일까지 이력서 접수, 접수 후 개별통보.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유재석, '미추리'로 金 예능 대전 참전... 11월9일 첫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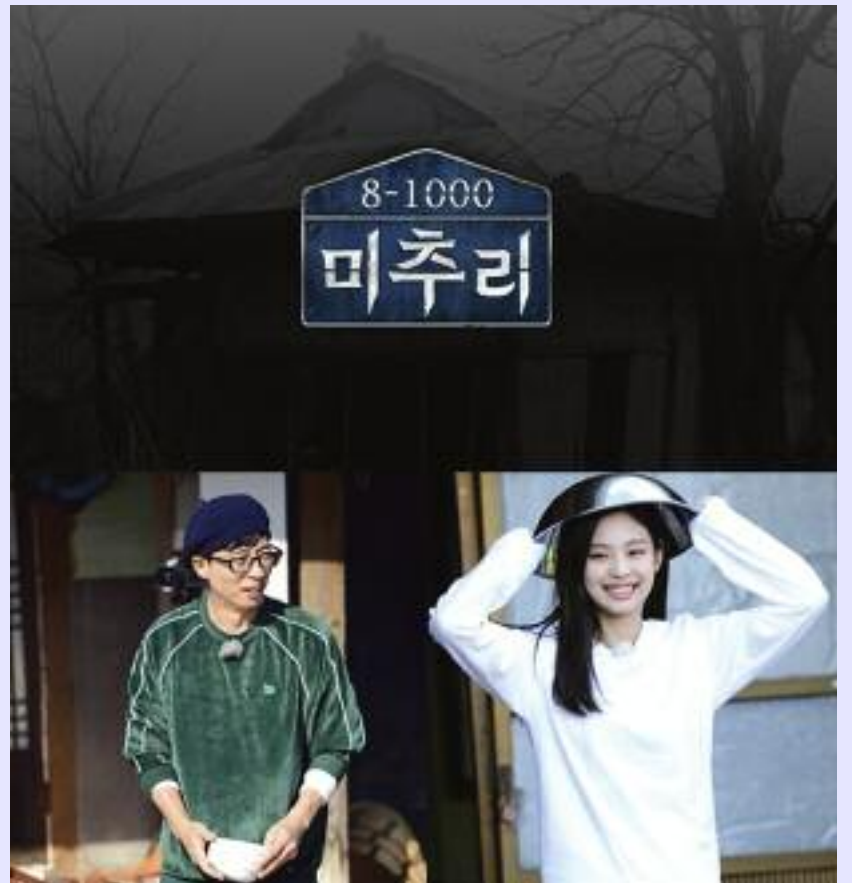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개그맨 유재석의 SBS 스타일러 예능 '아름다운 가을 마을, 미추리'(이하 '미추리')가 오는 11월9일 처음 방송된다.

'미추리'는 유재석을 비롯한 8인의 스타들이 '미스터리 추적마을' 미추리에서 예측 불허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24시간 시골 미스터리 스타일러 예능'이다.

기존 예능에서 보지 못했던 신개념 예능인만큼 초호화 라인업 출연자들이 함께 한다. 유재석과 함께 '예능 대세'로 떠오른 블랙핑크 제니가 전격 합류했고, 예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배우 김상호와 강기영, 손담비, 임수향, 송강이 출연한다. 믿고 보는 양세형과 장도연도 '미추리'를 통해 환상의 호흡을 선보인다.

최근 진행된 첫 녹화는 그야말로 파격과 충격 그 자체였다. 편안한 버라이어티 예능으로 알고 왔던 출연자들은 사전에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한 채 촬영장에 도착했고,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반전이 공개되며 대환란에 빠졌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을마을' '미추리가 아닌 '미스터리 추적마을'이라는 것부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한 생존 능력과 뛰어난 창의력, 추리력을 가진 8명의 멤버들이 '미추리'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첫 회부터 화제를 몰고 올 새 금요 예능'

미추리'는 11월 9일 밤 11시 20분에 처음 방송된다.

breeze52@news1.kr

크러쉬, 실검 등장.. '라디오스타'에서 "아이린이 이상형" 고백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자 = 가수 크러쉬가 주목받고 있다.

크러쉬는 31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게스트로 출연, 솔직한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크러쉬는 이상형을 물어보는 MC들에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구라는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크러쉬

는 바로 "저는 아이린이!"이라고 깜짝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이린은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다.

크러쉬는 "아이린을 한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정말 육성으로 '와, 진짜 너무 예쁘다'라고 감탄사가 나왔다"라고 일화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아이린이 웃으면서 가더라. 생각만 했는데 말이 튀어나왔다"라고 설명했다.

ill@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말할 수 없는 고통 '염증성 장질환'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염증성 장질환'은 어감상 별로 중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 10명 중 9명은 이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이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휴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추측되는 원인 또한 복잡적이다.

크게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장내세균 포함), 면역계의 부적절한 반응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장 벽이 망가지거나 변형되는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어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 당신의 장(腸) 안녕하십니까?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장질환 대처법 자주 화장실을 찾는다면...

술을 마신 다음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상적으로 배변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심한 설사에 시달리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 필자도 비슷한 부류에 속했다. 과음

하면 어김없이 설사에 시달렸다. 과음한 뒤에 나타나는 설사 증상은 '과민성장 증후군'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술에 있는 알코올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 분비량을 줄이고 음식물의 장내 흡수율을 떨어뜨린다. 과음 다음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복통을 느끼며 곧바로 화장실을 찾게 되는 이유다. 알코올은 위 점막과 대장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기도 한다. 흡연도 증상을 악화시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과민성장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4년 146만5185명에서 지난해 155만4931명으로 늘었다.

담배, 술, 커피,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성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한동안 줄이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안심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필자는 주변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증상을 느낄 때 반드시 '대장내시경'을 해보라고 권한다. 과민성장 증후군보다 훨씬 중대한 장의 문제를 찾아내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덤으로 전문의 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40세를 넘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권한다.

큰 병 막는 조기진단 중요
장질환의 '대장' 격인 대장암은 과민성장

증후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안긴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15년 기준으로 신규 위암 환자는 2만 9207명, 대장암 환자는 2만 6790명이다. 위암 발병은 해마다 감소하고 대장암은 늘고 있어 환자 수는 조만간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진 행태는 반대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등 7개 광역시도에서 30~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내시경 검사를 1번 이상 받은 비율은 78.5%였지만 대장내시경 검사는 40.4%에 그쳤다. 대장암을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2%에 이른다. 2015년 기준 전체 암 환자 5년 생존율 71%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장내시경은 조기진단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심지어 검사 과정에 '대

장암의 씨앗'으로 불리는 '용종'도 제거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선종성 용종'의 직경이 1cm 미만이면 절제 후 3년마다, 1cm 이상이나 다발성이면 절제 후 1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암이 아닌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 받아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궤양성 대장염을 방치하다 더 큰 병을 만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복통, 설사, 빈혈, 피로 등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된 궤양성 대장염의 절반에서 암이 발병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주로 항염증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의 약물치료를 하는데 재발 위험이 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MONE  TOFU

직원모집

함께 일하실분 찾습니다

11월초 오픈 예정

781.605.2766

184 Salem St. Malden MA 02148

가람 국악 앙상블

제2회 가람국악경연대회 우승자



김혜원 가야금
박수빈 대금

유민현 아쟁
장지원 소리



대금, 가야금산조, 춘향가 등
11월 14일 (수) 오후 4시
무료 입장



Ryder Hall #354
Northeastern University
11 Leon St. Boston MA



노스이스턴 대학교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



한국 국악원 단원 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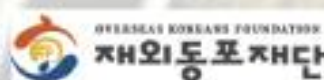
박다솜 가야금
원완철 대금
정준호 장구
이정미 무용
강가민 피리



11월 15일 (목) 오후 8시
무료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 Talbot Ave. Medford, MA



신영의 **세상 스케치**

66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최명희 선생' 문학관에 다녀와서...

여행이란 어떤 목적지를 정해둔 출발보다 목적지 없이 훌쩍 떠나는데 더욱 가슴 설레고 떨리는 마음에 흥미롭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이번 한국 방문은 친정 조카 결혼식이 있어 일정을 정해 떠난 여행이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처럼 목적이 아닌 훌쩍 홀로 떠나는 여행에 시간을 하려한다. 그렇다, 정해진 목적의 날은 어차피 정해진 날이니 내게 맞는 옷을 차려입고 그 장소에 가서 친지들을 만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그 외의 정해진 여행의 시간을 어떻게 얼마만큼 만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가가 나의 여행의 진정한 목적일 게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 이제부터는 정해진 여행 시간 동안 시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행은 한국에 계신 친지들이나 친구 그리고 지인들을 찾아뵙는 여행이 아닌 오롯이 홀로 돌며 생각하는 그런 여행으로 생각을 굳혔다. 하루 24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내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내가 한국에 산다면 아무 때나 찾으면 될 곳도 정해진 여행 시간이니 아쉬움이 남지 않을만큼 몇 찾을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 놓았다. 그렇게 정해 놓은 곳이 지난번 찾았던

인천의 '소래습지공원'과 '소래포구' 그리고 전주의 '한옥마을'과 '최명희 문학관'이었다. 나는 무작정 전주의 그곳을 찾았다.

그리고 전주 한옥 마을을 들어서며 전통 성당을 둘러본 후 우선 경기전(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곳)을 둘러보았다. 태종은 1410년 전주·경주·평양에 태조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모시고 어용전이라 하였다. 그 후 태종 12년(1412)에 태조 진전이라 부르다가 세종 24년(1442)에 와서 전주는 경기전, 경주는 집경전, 평양은 영흥전으로 달리 이름을 지었다. 경기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광해군 6년(1614)에 다시 고쳐 지었다. 이렇게 경기전을 둘러본 후 부채문화관을 둘러 관람하고 전주 고장이 낳은 『혼불』의 작가 '최명희 문학관'에 들러 긴 시간을 둘러 보게 되었다.

어느 분의 표현처럼 『혼불』은 책의 제목인 동시에 한 예술가의 목숨의 불, 그렇다! 일제 강점기, 종부(宗婦) 3대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다양한 사랑과 욕망의 드라마를 담고 있는 최명희의 장편소설 『혼불』은 정말 우리가 살았고 살아가는 20세기와 21세기의 불확실한 시대에 불씨로 꺼질 수 없는 혼불로 남은 것이다.

"그름은 지하에 뜬 만월(滿月)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

"내가 정말 쓰고 싶었던 것을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 (1997년, 11회 단재상 수상소감 중에서)

"언어는 정신의 지문(指紋) 나의 낮이 짙히는 그 무늬를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말에는 정령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도 하지요. 생각해 보면 저의 소설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말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 그것은 항상 매혹과 고통으로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고 모국어는 모국의 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랜 세월 써오고 있는 소설 『혼불』에다가 시대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쪽 정이가 아니라 진정한 불빛 같은 알맹이를 담고 있는 말의 씨를 삼고 싶었습니다." - (1998년, 8회 호암상 수상소감 중에서)

최명희 선생의 문학관 안에는 선생이 한평생을 혼신을 다해 밤낮으로 흘렸을 피땀 서린 흔적들이 빼곡히 사방 벽면과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고풍한 전율이 내 깊은 가슴

에 와 닿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선생의 혼불이 내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껌껌이 쌓인 원고지와 깨알처럼 빼곡히 적힌 선생의 글들이 감동보다는 가슴 답답하리만큼 저린 고통으로 내게 다가왔다. 아, 나 여기 있음이 그렇게 감사한 날인 것을 처음 느껴보는 순간이었다. 그 찰나 안에 선생과 한몸이 된 그 느낌을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 감동보다 깊은 슬픔과 고통인 것을.

선생이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 라는 것이다. 굴곡진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아픔을 밀어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슴에 꿰어 안고 삭이며 홀로 글쓰기에 일평생을 바친 것이다. 그렇게 아픔과 시련과 고통의 긴 고행의 시간을 지나 해산의 고통을 이겨낸 후에야 『혼불』이 태어난 것이다. 그랬으리라, 선생이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그 『혼불』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시련이고 고통이었다. 그것은 지난 우리의 과거와 앞으로 올 미래 사이에서 견뎌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묵인 지금이다. 선생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처럼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그 남자의 로망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보스톤코리아 이 줄문을 읽으신다 했다. 질문 성 말씀을 이어갔다. 아마 내게는 책이 가득 들어찬 서재를 갖고 있을 것이다. 대답이 궁했다. 그냥 얼버무렸는데, 큰 실례를 저질렀다.

나라고 서재를 향한 로망이 없지는 않았다. 개꿈이었는데 풀나는 서재를 갖는 것이었다. 서재 한 구석엔 작은 미니바를 갖춰야 한다. 은은한 전등불빛 밑에 와인과 책은 기막힌 조합일 테니 말이다. 폭신한 안락의자가 있다면 첨화添花다. 책은 읽는 등 마는등 와인에 취해 잠에 빠질테니 그건 문제다.

서재엔 서가書架가 있어야 한다. 한창 연구가 재미있을 적이다. 교수나 선배들 오피스를 엿봤다. 전공저널이 책장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게 부러웠고, 멋있어 보였다. 한편, 각종 전공 시험엔 신간저널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당연히 나역시 구독해야 했다. 품이 먼저고, 겉멋이 앞섰다. 돈을 내고 받아보기로 했다. 격주로 두어권씩 우송되어 내게 도착했다. 밀줄쳐 가며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시들해졌다. 대신 내 작은 서가는 신간저널로 채워져 갔다. 스스로 흡족했음은 물론이다. 아, 나도 이제 학자의 반열에 들어섰군. 어~흠. 역시 품생품사된거다.

서재나 서가書架를 향한 짝사랑도 시들해졌다. 십수년 전 이사올적에 쌓아 두었던 스물몇 개 저널박스는 아직도 풀지 못했다.

아내의 일갈一喝이다. 게을게 누워 책장을 넘기는 한가한 내 모습을 본 다음이다. '애가 보고 배운다. 썩 일어나지 못할까!' 투덜대는 내 항변이다. 포서면抱書眠일텐데, 책을 품고 잠이 드는중.

먼저 인용한 글에서 다시 따왔다. '고통스러운 밥벌이의 시간이 끝나면 다른 한쪽 구석에서 다른 꿈을 꾸다.' 당신의 로망은 무엇인가?

모세의 책중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마가 12:26)

어디선가 읽었다. 이 글의 시작은 이렇다. '남자는 로망으로 산다. ... 남자가 로망을 잃으면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

남자의 로망이라? 유튜브에서 봤다. 맥주광고였다. 부부가 친구들을 초대했고, 집을 구경시키고 있었다. 아내는 친구들을 옷방으로 먼저 안내했다. 친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순간, 남편친구들의 시끌한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친구들에게 맥주저장고를 자랑한거다. 커다란 냉장고가 여러개 설치된 방이었다. 방

엔 냉장고마다 맥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마키아벨리. 귀에 익은 이름이다. 그는 대단한 공부광이라고 들었다. 저녁때 직장에서 퇴근하면 공정복으로 갈아 입고, 서재로 갔다고 했다. 서재에선 책을 읽고 글을 썼을터. 그의 저작들은 서재에서 생산된게 틀림없다. 마키아벨리의 서재는 어땠는지 그건 궁금하다. 아마 조출하지 않았을까.

서재 이야기가 나온김에 덧붙인다. 몇주 전이다. 우리교회 노老선배 한분이 말씀하셨다.

오늘 밤 온 세상을 집어삼켜라!

<부산행>을 잇는 역대급 신드롬



세계 4대륙 19개국 동시 개봉 화제작!
<공조>김성수 감독! <부산행> 제작팀!

"오싹한 전율의 121분, 크리쳐물의 신세계를 열다!"

-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

"눈을 땔 수 없는 스릴과 쾌감 선사!"

- OSEN 김보라 기자 -

"드라마도 액션도 모두 잡은 욕심쟁이!"

- iMBC 김경희 기자 -

"소재적 재미, 화려한 액션
의미 있는 메시지의 종합 선물 세트!"

-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

초대형 생존 액션 블록버스터

RAMPANT

치명적

현빈 | 장동건 | 조우진 | 이선빈 | 김의성 | 김성훈 감독

Next Entertainment World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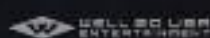
11월 2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RAMPANT-MOVIE.COM

facebook.com/HitKMovie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장군과 외교관의 차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크게 두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전쟁터의 장군을 모델로 삼는 에이전트와 협상테이블의 외교관을 지향하는 에이전트이다. 이들의 부동산 비즈니스 철학은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있다. 장군을 모델로 삼는 에이전트는 부동산 매매를 전투로 간주한다. 누군가가 이기면 다른 쪽이 패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전투하듯이 이기려고 한다. 양보는 없고 전략적 후퇴만 존재할 뿐이다. 즉, 작은 후퇴는 더 큰 승리를 위한 전략일 뿐이다. 상대방을 위한 존중과 기대는 없다. 어떤 편법을 써도, 불법이 아니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상대 에이전트를 다른 케이스로 다시 만나도 반갑지도 아쉽지도 않다. 그저 이겨야 하는 상대일 뿐이다.

외교관을 모델로 삼는 에이전트들은 정반대의 철학을 갖는다. 장군 에이전트들이 전쟁을 갈망한다면, 외교관 에이전트들은 전쟁방지에 주력한다. 전쟁방지를 위해서

바이어와 셀러에게 자극적인 말은 피하고, 우호적인 언어를 선호한다. 바이어와 셀러의 목적지를 충돌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조심조심 진행한다.

상대 에이전트를 다른 케이스로 다시 만나면 반갑게 맞이한다. 평화유지를 위한 파트너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 에이전트는 장군 에이전트이고, 다른 에이전트는 외교관 에이전트일 때 심한 정신적, 경제적,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관 에이전트의 평화적 양보가 장군 에이전트에게는 당연한 전략적 승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결국 일방적인 승리만을 고수하는 장군 에이전트측의 입장으로, 외교관 에이전트 쪽도 평화대신 전쟁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계약합의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깨지는 경우가 목격된다.

사실상 에이전트의 성향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객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

외교관의 미소를 짓고 있지만, 품속에 비수를 들고 있을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이런 각도에서는 고객이 주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부동산 에이전트의 첫번째 기본항목은 “고객의 이익을 무조건 목적으로 한다” 이다. 즉, 고객을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 규정내에서 어떤 방법이라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객이 모든 부동산 매매 진행을 장군 에이전트로 임하길 바란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모든 사항들이 이기고 지는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결국 자신의 고객에게 승리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고객이 외교관 에이전트를 원하면, 모든 진행이 협상과 타협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에게는 티끌만큼의 호전적 성질이 없어서 장군 에이전트가 될 자신이 없다든지, 협상에는 알레지 반응을 일으킬 만큼 공격적이라면, 과감히 고객에게 고용을 사양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

하는 것을 자각한다면 에이전트는 더이상 “부동산 에이전트의 첫째 항목” 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에이전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확실히 나를 도와줄수 있는 에이전트” 를 찾는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50 화랑세기(花郎世紀), 10세 풍월주(風月主) 미생랑(美生郎)(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미실이 12살 밖에 되지 않은 동생 미생을 화랑도에 입문시켰다. 그는 너무 어려서 말에 혼자 오를 수도 없었다. 하지만 사다함은 미실의 명이라 거역하지 못하고 받아드렸다. 반면에 아버지 미진부와 문노는 유약하다고 받아드리지 않았다. 문노는 노골적으로 “무릇 낭도란 자의 힘이 말에 오를 수 없고, 검을 사용할 수 없다면, 하루아침에 일을 당할 때 어디에 쓸 것인가?” 라고 꾸짖으며 반대하였다. 이에 당시 풍월주 사다함은 연인의 동생이며, 얼굴이 아름답고 춤을 잘 추어 여러 낭도들을 위로할 수 있으니 받아 드리길 간청했다. 그러자 문노 역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미생은 화랑도에 입문할 수 있었다. 미생은 격검(擊劍)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노를 꺼려하며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문노 역시 미실의 언행을 탐탁치 않게 보면서 거리를 두었다. 반면에 미실의 남편 세종에게는 견마지로의 충성을 다하였다.

사다함이 약관의 나이도 채 되기 전에 죽자, 244) 다음 풍월주의 위는 세종이 이어받았다. 그리고 세종은 부인 미실을 기쁘게 하고자 미생을 전방화랑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정의의 사도’ 문노의 기수에 부딪히고 말았다. 미숙한 미생을 화랑도의 3인자(245) 자리에 앉힌다는 건 신기의 격검술을 보유한 문노에게는 용납될 수 없었다. 한편 미실은 많

은 돈을 풀어 낭도들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사리(私利)에 밝은 자들로 하여금 미생을 따르게 하였다. 미실의 든든한 세력이 뒤받침하고 있었지만 유약했던 미생은 여전히 나약한 청년기로 접어고 있었다. 문노의 ‘호국선’ 보다는 설원의 ‘운상인’ 화랑으로 자라나는 미생은 누이 미실의 힘으로 화랑도의 2인자인 부제의 자리에 가까워 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누이 미실의 색정은 미남자에 피리도 잘 불고 춤을 잘 추었던 운상인 화랑도의 우두머리 설원랑에게 빠지고 말았다. 설원랑은 나중에 이름을 설화랑을 개명했는데, 금진이 구리지가 관산성전투에서 전사하자 남편의 용양신 설성과 사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구리지는 설성을 아들같이 또 신하같이 키웠다. 어느날 성 밖 작은 마을 동구박 들판에서 뛰어 놀던 ‘흙문은 진주’ 같은 아이, 설성과의 만남으로 그가 살고 있던 초막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미혼모 설씨녀의 기구한 삶의 여정을 듣고나서 구리지는 그녀를 첩으로 삼았다(자세한 내용은 7세 풍월주 설화랑 편 참조,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 ‘설씨녀薛氏女와 가실嘉實’의 이야기가 설성의 어머니 설씨녀가 남도의 유화로 있을 때 하룻밤 정을 나누고 변방으로 떠난 미남 화랑도의 이야기를 약간 각색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설원랑에게 빠진 미실은 동생 미생에 앞서 연인 설원랑을 화랑도의 부제로 임명하였다. 그

리고 설원은 그다음 7세 풍월주가 되었고, 미생은 설원 밑에서 부제를 하였지만, 8세 풍월주가 되지 못했다. 당시는 정사(政事)는 돌보지 않고 정사(情事)에만 몰두하던 진지왕 폐위 사건이 있던 579년이었다. 화랑도의 내부에도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다. 그래서 풍월주의 위는 문노에게로 또다시 비보랑에게로 이어졌고, 미생은 36살의 나이인 585년에야 풍월주에 오를 수 있었다.

244)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낭주는 평소 색에 빠져 살았다. 법흥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출산을 하지 못하여 출궁 당했다. 그 후 구리지의 사랑을 받아서 토함과 사다함 그리고 새달을 낳았다. 그리고 554년 구리지는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다음에는 구리지의 용양신 설성과 사통하여 설원랑을 낳았다. 불행하게도 설성도 가야정벌에서 전사하였다. 금진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인 사다함의 친구 무관랑을 몰래 침실로 끌어들었다. 이에 무관랑은 사다함 대하기가 어려워서 ‘사우死友’를 맺은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사다함은 오히려 무관랑에게 모두가 어머니 탓이라며 친구를 위로하였다. 그러나 사다함 휘하의 많은 낭도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괴로워하던 무관랑은 도망하여 밤에 궁의 담장을 넘다가 구지溝池에 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 그러자 사우를 잃

은 사다함은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한 나날을 보내다가 여위고 병들어 7일 만에 죽었다. 이때 사다함의 나이 18,9세였다. 색정에 빠진 금진에게 끌리다가 요절한 무관랑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가 떨어진 ‘구지’의 등장은 박창화의 ‘필사본’이 진본 화랑세기를 보고 필사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 중의 하나이다. 월성 밖 구지의 존재는 박창화가 필사할 당시인 1930년대에는 아무도 몰랐다. 뿐만아니라 1984년 까지도 월성 주변에 구지의 존재를 아는 이가 없었다. 1984년부터 1989년 까지 실시된 1차 월성 유적 발굴 조사와 이어서 실시된 2차(1990 ~ 1994년) 발굴 조사에서 그 구지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45) 후일 문노가 풍월주의 위에 있을 때 부서가 개편되면서 좌우봉사(左右奉事)를 좌우대화랑(左右大化郎)으로, 전방봉사(前방奉事)를 전방대화랑(前방大化郎)으로 하였다. 미생의 위를 전방대화랑이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아 화랑도의 3번째 서열인 전방대화랑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www.gch.go.kr)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상속세 · 증여세(6)

사전증여 효과 있나? - 미국세법-

지난 주에는 사전증여에 대한 한국에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주는 사전증여가 미국에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주와 동일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父)로부터 시가가 2억원인 부동산 A(당초취득가액 1억원)를 증여받았다.

- 부(父)는 부동산A증여 후 5년후에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부동산A의 가치는 10억원, 그외 상속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모든상속공제후)이 30억이었다.

2. 미국의 상속세및 증여세상 효과

미국에서는 증여자(donor)가 증여세를 낸다. 이 때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면 전세계의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비거주자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미국에는 증여세 납부의무 없어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증여자가 한국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므로 증여자인 부(父)는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수증자인 김한국씨도 미국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미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0,000을 초과하면 수증자가 그 증여내용을 IRS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김한국씨는 Form 3520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마다 증여받은 가액의 5%씩 가산세가 부과된다(최대 25%까지).

상속의 경우도 증여와 동일

미국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낸다. 피상속인

이 미국의 거주자면 전세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비거주자면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낸다.

위 김한국씨의 사례에서 부동산A를 상속했다고 가정하면,

피상속인이 한국의 거주자이고 상속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피상속인(김한국씨 부(父))은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고, 상속인(김한국씨) 또한 미국에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이를 정리하면, 미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국 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미국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증여세와 상속세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

그럼 위 김한국씨가 사전증여를 받든, 아니면 상속을 받든 미국세법상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는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취득가액(basis)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세법은 증여로 받은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장부가액이 공정가치 보다 크면 별도 규정이 적용됨), 상속으로 받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A를 증여를 통해 받든 김한국씨의 취득가액(basis)은 당초 부(父)의 장부가액인 1억원이며, 상속을 통해 받든 김한국씨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인 10억원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증여의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를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며, 상속의 경우 상속당시의 시가를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결국 양도소득이 달라져

증여의 경우와 상속의 경우 김한국씨의 취득가액(basis)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향후 부동산을 매각할때 발생한 양도차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김한국씨가 부동산A를 시가 15억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증여받은 경우의 양도차익은 14억원이고, 상속 받은 경우의 양도차익은 5억원이다. 이는 향후 김한국씨의 양도소득까지 고려하면 미국 세법상으로는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여기서 사전증여에 대한 위 김한국씨의 사례를 정리해 보자.

한국에서는 위 김한국씨의 경우 사전증여하는 것이 상속받는 것보다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했다(물론 향후 김한국씨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점에서는 사전증여 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이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김한국씨가 향후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로부터 한국의 재산을 물려 받을 때, 증여가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 증여단계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 증여후 증여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 상속단계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 그리고 수증자 또는 상속자가 향후에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양도, 증여, 상속 등)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세금(예를 들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The 6th Annual

2018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Young Leaders Symposium



NE 시민협회 제 6차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Proudly hosts the Young Leaders Symposium

Guest Speakers

RON TAE SOK KIM

Assemblyman
Member of New York State Assembly

PHILIP CHONG

Chief Executive Officer
Quincy Asian Resources Inc

Special Guest : MARIA ROBINSON

Korean American Candidate for Mass State Representative

HYEOK CHRIS HAHM, PhD

Associate Professor, Social Research
Social Work, Boston University

KEE B. PARK, MD

Paul Farmer Global Surgery Scholar
Harvard Medical School
Chair of Global Health at KAMA
2014 KAMA Humanitarian Award Recipient



Date & Location

November 10th, 2018 (SAT), 2 P.M - 6 P.M

Harvard Law School, Room WCC2012 (1585 Mass Ave. Cambridge, MA)

Dinner + Parking Provided

For questions, call:

President Kay Dong (508)962-2689,

Vice-president Kyung S Choo (978)494-3960

To register for the event, please contact at
newenglandkacl@gmail.com

www.kacl-ne.org



Sponsored by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ston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48) 투자하는 목적

주식시장이 10% 하락했습니다. 모든 방송, 신문, 인터넷은 주식하락을 연일 보도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주식시장이 더 내려가기 전에 팔고 나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주식시장 하락으로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때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의 조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워런 버핏은 투자로 큰 부를 쌓은 것은 물론 주식시장의 변함을 평생 경험한 사람입니다.

- * 투자자의 최대 적군은 마음의 흥분 (Emotion)과 투자 경비(Expenses)이다.
- * 주식시장이 언제 하락하고 얼마나 하락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 *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장기투자의 개념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인덱스 펀드를 처음 시작한 벡가드의 창업자인 존 보글의 투자 조언은 단 2가지로

요약합니다.

- * 분산투자, 분산투자, 분자투자
- * 경비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형성해서 운용할 것

내일, 24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예측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하는 투자가 제대로 하는 투자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 * 유망한 회사만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도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떨어진다면 일반 투자자가 개별적인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비율(자산분배)로 투자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는데 나의 투자 목적에 적합한 투자비율인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 분산투자의 개념으로 여러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종목에 어떤 이유로 투자 종목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선택한 모든 투자 종목의 전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투자 목적, 투자 기간, 투자 위험성을 재삼 숙고해야 합니다.

* 주식시장이 상승하던 하락하던 투자 비용은 항상 부과됩니다. 재정설계가 말하는 투자 비용 외에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Total Expenses - Management Fee, Investment Fee, Commission, etc)를 알아야 합니다.

* 투자는 누구나 쉽게 간단히 할 수 있지

만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LA를 방문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 도중 이상 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몹시 흔들립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주식투자도 이와 비슷합니다. 목적지를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변할 때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재정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투자는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아이들 학자금' 혹은 안락한 '은퇴를 위한 투자' 입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투자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장기투자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주식시장이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독자기고] 클라라 윤

"사랑하는 저의 아들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한 달 전 스물세 살 생일을 보낸 아들이 화가 나 있다. "이게 말이 되요? 나의 존재를 없애려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려는 게?" 아들은 그날 아침 트럼프 정부가 '젠더'의 법적 정의를 크게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한 뉴욕 타임즈의 보도를 읽고 몹시 분노한 것이었다. 뉴욕 타임즈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개인의 성별을 출생 시 성기에 따라 정하고 이를 평생 바꿀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젠더에 대한 이같은 정의는 '트랜스젠더'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규정하는 사람은 최소 140만 명이라고 뉴욕 타임즈는 보도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아들은 그 140만 명의 트랜스젠더 중 한 사람이다. 우리 아들은 2010년 고등학교 9학년 때 커밍아웃을 했고, 벌써 6년 넘게 남자로 살고 있다. 결코 쉽고 간단하지 않은 여러 절차를 밟아 남자로 성별을 바꾼 후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잘 성장한 우리 아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과 연애에 대한 고민을 하며,

빨리 집에서 독립해 친구들과 살고 싶어하는 평범한 미주 한인 2세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아들은 지금 남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태생적으로 여성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자 화장실을 써야 하는 등 사회에서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단지 소수자이고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은 심화될 것이고, 결국 아들은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도 처음 우리 아들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알게 된 후 많이 혼란스러웠고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아들을 통해 성소수자 분들에게 대해 더 알게 되면서,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런 뜻하지 않은 기사에 화가 나 있는 아들을 보며 기성 세대 부모로서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다. 기운이 빠지면서 화가 났다. 실은 나도 같은 기사를 아침에 봤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루 종일 생각 하지 않으려고 했다. 본인은 오죽할까?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트랜스젠더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용기와 각오를 다지려고 한다.

그 동안 매사추세츠 트랜스젠더의 권리

를 보호해 왔던 차별 금지법이 이번 11월 주민 선거의 안건으로 올랐다. 유권자들은 이 차별 금지법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투표하게 된다. 지난 2016년 매사추세츠에서 통과된 차별 금지법은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에게 식당, 상점 및 병원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차별 받지 않고 본인의 안전, 생활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어느 누구나 누려야 하는 똑같은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반대자들로 인해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고 한다. 법이 발효된 이래 성소수자들이 법을 남용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번도 없었다. 차별 금지법은 보스턴 이외의 많은 도시에서도 통과되어 10년 넘게 문제가 없이 유지되어오고 있다.

나는 10월 27일 토요일에 성소수자 자녀를 둔 여러 동양계 부모님들과 보스턴에서, 동양인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 안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 워크숍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요일에는 보스턴 차이나타운의 유권자들을 한집, 한집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로 인해 매사

추세츠에서 차별 금지법이 폐기된다면 이를 계기로 다른 주에서도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핍박하는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기에, 여러 주에서 오신 동양계 그리고 한인 부모들과도 힘을 모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당히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저의 아들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차별 금지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거 날 3번에 꼭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우리아이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클라라 윤은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아들의 어머니이다. 2012년, 뉴욕시 성소수자 부모모임 (PFLAG NYC)의 아시아계 무지개 부모모임을 창립하여 아시아계 성소수자들과 가족들에게 문화적 맥락에 적절한 정보와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 성소수자 부모모임의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 .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 . 상속 .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 .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런드로맷, 서머빌/매드포드지역, 연매상 230,000+, 사이즈 2000sq+
머니메이킹, 아파트 주거지역,

세탁소 풀 플랜트, 워터타운/월담지역, 연매상 185,000+ 좋은 지역

Reflexology(리플렉솔로지:손발건강 관리), 연매상 \$700,000, 연 순수익 \$250,000
아주 변화한 좋은 장소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아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도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Core Services

1. Saturday Lock-In

SAT1 / SSAT class
Essay Writing
Practice tests
Teachers' evaluation



2. Admission Process

Secondary School / College
School lists
Application form
Essay instruction / Revision
School tour and Interview

3. Guardianship Service

Academic cours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School visit and meeting
Test Plans / Registration
Summer activities / Enrollment

2018 Thanksgiving Specials

- SAT 1/SSAT Tests Prep 그룹 수업
- SAT 2 Subject Tests Prep 개인 수업
- Contest Prep 개인 수업
- 학교 교과목 수업 보강

Grade

SSAT: 8, 9학년
SAT: 10, 11학년
기타 수업: All graders available

Date & Sessions

11월 17일(토) - 11월 25일(일)
(22일 Thanksgiving 당일은 휴강)
Session 중간 등록 가능

Tuition and Fees

수업 종류와 시간에 따라 차등
담당자 문의

Daily Schedule

09:00am-12:00pm	SAT1 / SSAT수업(Reading, Writing, Verbal) 철저한 일차형 학습 관리를 바탕으로 정확한 오답 노트의 작성과 필수 단어, 문법들을 점검합니다.
12:00pm-01:00pm	점심 식사 영양가 있는 식단의 구성으로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01:00pm-04:00pm	Practice Test (full test) 선 문제들을 풀어 보면서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합니다.
04:00pm-05:00pm	Test review & grading 스스로 분석해 보는 테스트 유형과 결과, 그리고 오답 노트 정리로 마무리 됩니다.

저희 보스톤 교육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준비된 교재와 강사진을 통해서 본인의 SAT1 / SSAT 및 각 종 Subject Tests에 대한 점검과 계획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